이천이십사년 | 가을호(통권 25호)
www.gyeoremal.or.kr

겨레말

| 겨레말 초대석 |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위기의 바다에서 미래를 항해하다

| 기획특집 | 남북 전문용어
통일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

남녘말 북녘말
디지털 통일을 탐구하다



목차

겨레말

이천이십사년 | 가을호(통권 25호)



03


08


12



29

02 겨레의 창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나니라 · 김주원

06 겨레말 초대석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위기의 바다에서 미래를 항해하다

12 심상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을 만나다 · 최희영

기획특집 | **남북 전문용어**

16 **통일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

18 **칼럼 1** 남북 전문용어 사전 현황과 통합 방향 · 신중진
남북 전문용어 사전 통합 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22 **칼럼 2** 남북 법률용어 연구 실제 · 류지성
남북한 법률 이질화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26 **칼럼 3** 남북 과학기술용어 연구 실제 · 최현규
남북한 전문용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겨레말 탐구생활

30 남녘말 북녘말
디지털 통일을 탐구하다 · 김성우

34 뜻풀이 깁고 더하기
피리 · 박샛별

38 우리말 보물찾기
시심사심 이약이약 · 조정

일러두기 | 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사업회'로, 남북공동편찬회의는 '공동회의'로 통일한다.
② 본지에 게재된 외부 필자의 견해는 사업회 입장 및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남북 공동의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여 민족어 보전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겨레말큰사전》**은 민족의 언어유산을 집대성하고 남북의 언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남과 북이 최초로 공동 편찬하는 우리말 사전입니다. 상세한 정보는 사업회 홈페이지(gyeoremal.or.kr)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42


44



46

42 이 계절의 책
《광명백과사전》 · 남초록

44 겨레말 사람들
변영수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편찬부장
남북 어휘를 새롭게 발굴하는 《겨레말큰사전》 문헌어 작업

46 겨레말 소식

48 겨레말 낱말 풀이



말과 글이 지닌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는 한글날

세종대왕은 1443년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을 창제했다(1446년 반포). 훈민정음에는 백성 모두 글자를 쉽게 익히고 편하게 쓰도록 했던 세종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후 우리의 국권과 국어를 빼앗겼던 일제 강점기 한힌샘 주시경 선생은 나라가 망하더라도 말과 글이 살아 있으면 광복을 이룰 것으로 판단하고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리나니라."라는 말씀을 남겼다(본문 4쪽).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정신은 주시경 선생의 어문민족주의 사상으로 이어졌으며, 주시경 선생의 《말모이》 편찬 작업은 오늘날 《겨레말큰사전》 편찬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글날, 우리에게 한글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사진 출처: 유토이미지

패낸이 **민현식** 편집인 **모순영** 책임편집 **윤석정** 편집 **김미경** 교정 **홍서현** 패낸날 **2024년 10월 1일**
패낸곳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12층(공덕동)** 전화 **02)3275-0815** 전송 **02)3275-3715**
홈페이지 **http://www.gyeoremal.or.kr** 전자우편 **gyeoremal@gyeoremal.or.kr**
디자인 **해든디앤피 02)2266-6372** 인쇄 **(주)태광P&D**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나니라

글 **김주원** 한글학회 회장

올해는 한힌샘 주시경 선생이 서거하신 지 110년이 되는 해이다. 선생을 추모하면서 선생의 발자취를 쫓아다녀 보기로 하였다. 한글학회와 세종국어문화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답사를 다닐 시민을 모았는데 전세버스 한 대에 탈 수 있는 인원인 25명이 당일에 마감되었다. 그날은 7월 27일로 선생이 서거하신 날이었다.

주시경 선생에 대해서는 워낙 책과 글과 논문들이 많아서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분으로 생각하지만 나 자신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직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버스의 한 자리를 신청하였다. 해설은 김슬옹 한글학회 이사가 맡았으며 재치 있는 설명으로 답사에 재미를 더해 주었다. 장마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마침 그날은 우산 없이도 다닐 수가 있었다.

한힌샘

주시경 선생이 시작해 놓으신 말모이 작업은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큰사전》(1947–1957)이 간행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말모이의 필요성이 생겨났다. 그 소중하고 뜻깊은 작업을 사업회가 수행하고 있다. 사업회의 편찬 사업은 종국에는 주시경 선생께서 염원한 대로 말을 높여서 나라를 높이고 민족을 높이는 작업이 되리라 기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겨레말》 독자들이 주시경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서 함께 다녀 보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주시경 선생의 생애를 연대순으로 따라가기 위하여 답사의 순서와는 다르게 적어 나가기로 한다.

답사의 출발지는 주시경 마당이다. 마당 옆에는 주시경 선생 집터가 있다. 큰 건물을 지으면서 집터 표지석만 남겨 놓았는데 거기에 '한힌샘'이라는 호에 걸맞게 크고 맑은 샘이 솟구치는 조형물을 만들어 두었다. 이 샘물은 앞으로도 계속 솟아나서 내를 이루어 바다로 갈 것이다.

배재학당

선생은 1894년에 배재학당에 입학하였으나 중간에 다른 곳으로 전학하였다가 1896년 3월에 배재학당에 재입학하였다. 당시의 배재학당에는 학생들이 학비를 벌면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다. 본인만 부지런하면 학자금이 없이도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선생은 1896년 4월부터 배재학당에 있던 삼문출판사에서 임시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서재필은 그해 4월에 독립신문을 창간하면서 선생에게 회계 겸 교보원(교정보는 이) 일을 맡김과 동시에 독립신문(세 쪽은 한글, 한 쪽은 영문) 한글 부분의 책임을 맡겼다. 4월 7일에 나온 독립신문 창간호는 천지개벽이라고 할 만큼 새로운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한자로부터의 독립을 소리 높여 외친 것이다. 기존의 한자 위주로 조판된 검은빛의 신문에 비한다면 하얀빛의 한글 신문이었다. 한글 전용에 띄어쓰기까지 갖춘 체재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글 세상의 모습을 예고하는 듯했다. 청년 주시경은 확고하게 우리 민족은 한글만으로 글자살이를 해야 한다고 실물을 보여 주면서 주장한 것이다. 이후 제국신문에서도 근무하였는데 이 신문은 민중 및 부녀자를 위한 신문이었으며 독립신문의 영향으로 역시 한글 전용에 띄어쓰기를 하였다. 독립신문에서의 '국문론'에 이어 제국신문에서도 일관성 있게 "국문이 발달되는 날에야 우리 대한이 세계에 독립 부강국이 될 줄로 짐작하노라."라는 논설을 발표하였다.

상동교회

상동교회는 남대문 밖에 있다. 성 밖에 사는 일반 서민들도 교회를 다닐 수 있게 하려고 그 위치에 지은 것이다. 전덕기 목사는 그곳에 상동청년학원을 개설하고 젊은이들에게 민족 교육을 시행하였다. 주시경 선생은 여기에 하기국어강습소를 세우고 국어와 국문을 가르쳤다. 1907년에 제1회 졸업생을 25명 배출하였다. 제2회 졸업식은 1908년에 안산 봉원사에서 행하였다. 제3회를 거쳐 제4회(1910년)는 주시경 선생이 근무하던 보성중학으로 옮겨 실시하였다. 이후 일시 중단되었다가 '하기조선어강습소'로 명칭을 바꾸어 제5회(1912년), 제6회(1913년)를 지방에서 개설하였다. '국어'라는 말을 못 쓰게 되니 '조선어'로 바꾼 것이다.

봉원사

『한글모 죽보기』(한글연구모임 일람)에는 1908년 8월 31일에 봉원사에서 '국어연구학회'를 창립하고 회장으로 김정진을 뽑았다고 적혀 있다. 이 학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학회이며 오늘날까지 116년을 이어오고 있는 '한글학회'이다. 봉원사는 당시에 새절이라고도 불렸는데, 여름 끝자락에 주시경 선생이 제자들과 함께 시원한 안산 계곡으로 가서 제2회 졸업식을 하면서 동시에 학회를 창립하고 국어 국문 연구의 의지를 다진 것으로 보인다. 제1대 회장인 독립지사 김정진(김호, 찰스) 선생은 1914년에 미국으로 가서 사업에 성공하여 상하이 임시정부에 독립운



↑ 상동교회(하기국어강습소)



↑ 봉원사(한글학회 창립한 곳)

동 자금을 보내는 등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였으며 외교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미주에서 독립운동의 위대한 지도자로 통한다.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에는 그의 이름을 딴 '찰스 H. 김 초등학교'가 있다.

국어가 조선어로

1910년 국권을 강탈한 일본제국주의는 일본어가 '국어'이며 지금까지의 국어였던 우리말은 '조선어'로 부르도록 강요하였다. 당장에 2년 남짓 써오던 '국어연구학회'의 이름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배달말글몯음(조선언문회, 1911년), 한글모(1913년) 등으로 이름이 바뀌어 갔다.

주시경 마당

주시경 마당에는 1910년 전후에 고뇌에 찬 표정으로 책 보따리를 들고 한말글을 강습하기 위하여 다른 학교로 바삐 발걸음을 옮기는 선생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다른 모퉁이에는 선생께 큰 영향을 끼친 헐버트 박사가 최초의 한글로 된 교과서인 『ㅅ민필지』(1891년)를 들고 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주시경 선생의 별명은 주보따리였으며 서울 시내 10여 교육기관을 돌아다니며 강의를 하였다. 주시경 마당 기둥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리나니라." 선생은 을사늑약을 겪으면서 국운이 곧 쇠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나라가 망하더라도 말과 글이 살아 있으면 광복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자들에게도 이 사상을 깊이 각인시켜 주었다. 이른바 어문민족주의 사상인데, 국권을 잃은 지식인이 자신의 학문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최상의 태도였다. 지식인이 현실을 떠나서 학문의 세계에만 몰입해 있을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이다.



↑ 한글가온길에 있는 주시경 마당의 주시경 선생 동상

세상을 뜨시다

선생은 1914년 7월 27일에 세상을 떠났다. 선생의 사회 활동 기간은 18년에 불과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선생은 애국 계몽 활동을 하고, 연구를 통하여 많은 저서를 남기고, 교육을 통하여 많은 제자를 길러 내었다. 실로 불꽃같이 치열한 삶을 살다 간 것이다. 많은 제자가 넋을 놓고 울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학문적으로 스승의 발치에도 못 따라갔는데 앞으로 이 나라의 국어국문 연구와 실천 활동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느냐 하는 절망감에서 운 것이다. 다행히 제자들은 스승의 이른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스승이 남긴 일을 목숨을 바쳐가며 성취해 내게 된다.

조선어학회 터

조선어학회 터는 화동 사무실이 있던 곳인데 '서울의 건축왕'이라고 불린 정세권 사장이, 여러 학자들이 한마음으로 스승이 완성하지 못한 《말모이》를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감명을 받아서, 1935년에 학회에 기증한 2층 양옥이 있던 집터이다. 정 사장은 오늘날의 북촌에 한국인을 위하여 많은 집을 지어서 분양함으로써 그곳을 일본인으로부터 지킨 분이다. 이 사무실이 있었던 덕분에 비로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하며 사전 집필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주시경 선생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년)이 마련되었으며 뒤이어 〈표준말 사정〉(1936년), 〈외래어 표기법〉(1941년) 등 어문 규범을 정하였다. 이제 사전을 만들 모든 준비가 다 된 것이다.

한글학회

한글학회가 있는 한글회관에 도착하였다. 조선어학회는 1949년에 한글학회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6 · 25 전쟁의 상처를 딛고 우리 민족 최초의 우리말 대사전인 《큰사전》(전 6권, 1947–1957)을 발간하였다. 한글회관은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33인 중의 한 분인 초대 법무부장관 이인 선생이 전 재산을 기부하고 여기에 국민 성금과 국가의 지원 등을 보태서 지은 5층 건물이다. 입구에는 주시경 선생의 흉상이 놓여 있다. 한글학회 사무실에는 《우리말 큰사전》(전 4권, 1991–1992)을 집필할 때 쓴 46만여 장의 카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한글학회는 주시경 선생의 국어 사랑, 민족 사랑, 나라 사랑 정신을 이어받아서 민족문화를 지키기 위하여 맨 앞자리에서 잠들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민족의 으뜸별 역할을 맡고 있다.

겨레말모이

주시경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조선광문회 집터도 방문했어야 하지만 이번에는 가지 못했다. 오늘날 세계인의 관심을 끄는 청계천의 광교사거리 부근이다. 선생은 평소의 지론에 따라서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1911년부터 제자들과 함께 편찬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선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하여 작업은 중단되고 말았다. 다행히 《말모이》 원고본 1책이 남아 있어서 그 면모를 엿볼 수가 있다. 그 후 그의 제자들은 온갖 고통과 박해를 물리치며 《큰사전》을 완성함으로써 스승의 염원을 이루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면서 늘 시대의 새로운 요청에 맞닥뜨린다. 이제 분단된 지 80년이 가까워 오고 남북의 말과 글은 동일한 바탕에서 출발하였지만 꽤 달라졌다. 새로운 말모이가 필요해졌고 그 일을 《겨레말큰사전》이 감당하고 있다. 앞으로 이 사전은 우리 민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선각자가 불꽃 같은 삶을 살며 외친 국어 사랑, 나라 사랑이라는 정신이 실현되는 또 하나의 기념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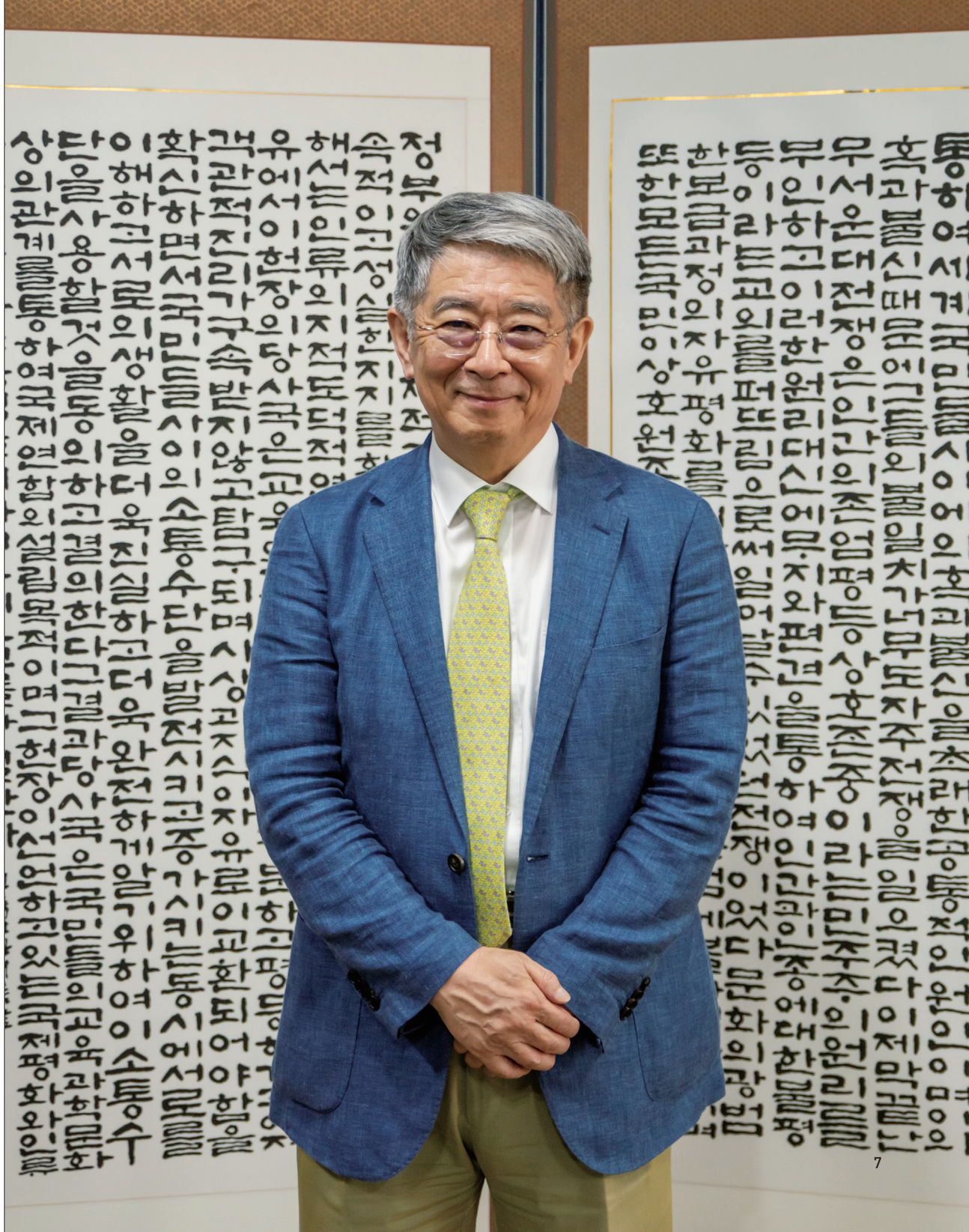
한글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역사비교언어학과 알타이어학을 연구했으며 훈민정음학회 초대 회장과 한국알타이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논문으로 「세계 여러 문자의 모음 표기 양상」, 「만주어 구어의 재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 최후의 화자가 말한 자신의 삶과 언어」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모음조화의 연구』, 『훈민정음』 등이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명예교수이다.

위기의 바다에서 미래를 항해하다

지난 8월 9일,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유네스코회관을 찾아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아래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만났다. 그는 2020년 12월 제21대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공교롭게도 그 시기 코로나19가 대유행했고 3년간 유네스코회관 앞 거리는 태풍이 휩쓸고 간 듯 적막했다. 그는 태풍 속에서 비전을 세웠고 도약의 발판으로 마련했다. 그는 해군 장교 출신답게 한국위원회를 '배'로 비유했다. 그가 만난 태풍 속 바다는 거칠었으나 항해는 거침이 없었다. 그가 몰고 가는 배에 슬며시 올라타 봤다.

진행·정리 **윤석정** 겨레말큰사전 기획홍보부 부장
사진 **이효영** 사진작가









사무총장이 돼 4년이 흘렀다. 그간의 소회가 궁금하다.

한국위원회에서 근무한 지 4년째이고 12월에 사무총장 임기를 마친다. 본인은 해군 장교로 전역해 배를 좋아한다. 한국위원회를 배로 비유하자면 지난날들에 대한 소회를 '태풍 속에서 배를 수리하며 미래를 항해하다'로 표현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라는 태풍이 본격화될 때 본인은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코로나19 위기는 유네스코회관의 임대 수입을 절반으로 급감시켰고 한국위원회의 재정 위기로 이어졌다. 본인은 배가 태풍 속 바다로 침몰하지 않고 미래를 항해할 수 있도록 배를 정비하고 수리해야 했다. 한국위원회가 미래로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확립했다. 이를 위해 조직을 혁신했고 일하는 방식도 바꿨다. 실제 유네스코회관 건물을 수리하기도 했다. 문화재청이 1967년 완공된 유네스코회관을 2022년 7월에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하면서 약 30억 원을 들여 건물 전체를 수리했다.

고된 수리 작업과 험난한 항해가 짐작된다. 그동안 한국위원회가 해온 일을 간추려 달라.

올해 한국위원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우리 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본부의 다양한 정책적 의사결정과 활동들을 국내에 확산하고 발전시켰다. 한국전쟁 당시 유네스코는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지원하는 대신 국정교과서 인쇄 공장을 설립했다. 이후 한국위원회는 교육 재건에 힘썼고 초등교육의 의무화, 비문해 퇴치 등을 펼쳤다. 또 문화부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없을 때 한국과 한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고 한국학 연구를 지원했다. 한국에 평생교육 개념을 도입했고 유네스코가 창안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의 국내 확산과 함께 유네스코학교 지정(국내 500여 개)을 했다. 문화와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의 유네스코 지정 유산 등재와 관련한 자문과 국내 심사 과정에 참여했고 유네스코 유산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알리고 국내외 유산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힘썼다.

사무총장 재임 중에 새롭게 추진한 사업은 무엇인가.

유네스코회관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했고, 건물을 수리했고, 한국 사회의 미래 담론을 연구했고, 후원 홍보를 위한 〈70GETHER〉 캠페인을 새롭게 시작했다. 또한 20년 넘게 계속해 온 한일교사대화에서 공동수업을 시도했고,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유산교육자료 『유네스코 유산, 평화를 품다』를 발간했다. 그리고 학교 밖 교육에 집중됐던 브릿지 사업을 기후 변화 대응 문화유산 보존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포럼〉, 〈6.25 종전 70주년 기념 국제청년포럼〉 등은 성황리에 마쳤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속할 수 없는 것도 있다.



한국위원회의 활동이 매우 다양하다. 새로운 비전은 무엇인가.

한국위원회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함께 만든다는 사명으로 '사람, 자원, 지혜를 모아 지적·도덕적 연대를 다짐으로써 한국을 빛내고 인류에 공헌'한다는 비전을 내세웠다. 한국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지적·도덕적 연대와 지도력을 강화하고 인류와 세계 평화를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국가위원회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정부가 정치·경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평화는 정부 간의 이익이 바뀌면 쉽게 무너질 수 있기에 취약하다.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해야 견고한 평화를 만들 수 있다. 유네스코 이념처럼 무력이 아니라 스스로 깨치고, 가르치고,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평화를 이룩해야 한다.

어떻게 조직을 혁신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꿨는가.

창립 이래 한국위원회가 해온 일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제 다른 기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21세기의 한국위원회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물론 우리의 활동 중에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활동들은 서로 연계돼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우리 사회의 상황에 따라 계속 활동이 변화해 왔고 이에 맞춰 조직도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 과학, 문화, 정보커뮤니케이션 등 각 분야별 전문성과 연계성을 바탕

으로 '지적연대본부'를 만들었다. 지적연대본부는 지적·도덕적 연대를 실행하는 사업 부서이다. 또 한국위원회는 미래를 바라보고 대비하기 위해 미래 담론 연구,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등 직접 사업들을 추진했다. 이를 더 잘하기 위해 지원 부서를 '미래혁신본부'로 바꿨다. 미래혁신본부에 후원홍보센터를 설치했고 연구소 운영도 준비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내적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숙의(熟議)의 장을 마련하려고 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재정적 안정의 중요성도 깨달았다. 예전에는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업을 수행할 때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만 책정했지만 지금은 인건비도 포함하기 시작했다. 미래를 항해하기 위한 배의 동력은 재정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배의 동력을 얻기 위해 후원자 모집을 하는 것 같다. 후원 캠페인을 시작한 이유가 궁금하다.

후원자 모집은 지금 효과보다 미래에 효과를 거둘 수 있기에 시작했다. 향후 한국위원회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서도 후원이 필요하다. 유네스코는 긴급구호가 아니라 예방에 주력하는 조직이다. 물론 지금 당장 굶주린 아이들을 긴급구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굶주리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비유하자면 유네스코는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고 인명을 구출하는 소방관이 아니라 미리 불이 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건물 설비를 정비해 화재 예방 교육을 하는 곳이다. 세상에는 문제를 예방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믿는다. 한국위원회를 후원하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한다. 후원자들의 기여가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후원할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후원으로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평화'를 지킨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평화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다. 본인은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울 수 있다. 흔히 사람들은 싸움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하기 쉽다. 만약 우리가 싸우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세상에서 억압과 착취를 사라지게 한다면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우리 사회는 구조적·문화적 폭력이 만연해 평화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일상에서 억압과 착취, 차별, 편견과 타협한다면 전쟁이 없을 뿐이지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폭력들과 부단히 싸워야 한다. 우리 일상에서 싸우지 않으면 나중에 전쟁이냐, 노예적 굴종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평화를 지키는 것은 용기와 인내, 소통과 기획, 조직과 협력, 유연성과 창의력 등 다양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사는 미래는 더욱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위원회와 함께 싸우자는 것이다. 본인은 올해 12월 위기의 바다에서 하선하지만, 우리 배는 계속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미래를 항해할 테니 우리와 함께 해 주길 바란다.

사업회와 국제학술포럼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공동 주최하고 있다. 포럼이 갖는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유네스코는 생물 다양성, 문화 다양성뿐만 아니라 언어 다양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언어 다양성은 전 세계 토착어들이 생명력을 갖고 사용됐을 때 유지된다. 유네스코는 유엔이 주창한 '세계 토착어 10년'의 주관기관으로서 2022년부터 10년간 소멸 위기에 처





한 토착어의 보존과 확산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유네스코 본부는 전 세계 대상으로 세계 토착어 10년 실행 계획을 주관하기에 규모와 예산 면에서 부족하다. 그런 상황에서 사업회가 주관하는 국제학술포럼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의미가 매우 크다. 사업회는 포럼을 통해 유네스코와 함께 '세계 토착어 10년' 활동에 동참했으며, 언어 다양성의 가치와 토착어 보존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더불어 토착어 보존을 위한 사전의 다양한 사례를 보여줬다. 특히 '토착어로 문학하기'는 토착어로 창작된 작품을 토착민이 직접 낭독하고 그 낭독 영상을 기록한다는 데 주목할 만하다. 올해도 오는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5회째 국제학술포럼이 개최된다. 토착어의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가하길 바란다. 앞으로는 유네스코 본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포럼에 참여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끝으로 언어 보전을 위한 《겨레말큰사전》의 역할에 관한 생각이 궁금하다.

우리 민족은 남과 북이 분단되고 해외로 흩어져 살고 있지만 언어 동질성이 남아있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의 상징과 의미는 매우 크다. 현재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화, 인터넷 환경이 발달하면서 종이사전보다 더 사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해졌다. 인공지능으로 토착어 화자를 재현할 수 있고, 지역어 번역기 제작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기에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사전을 발간하면서 종료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 언어 보전을 위한 사전의 활용을 생각해야 한다. 사전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상상하고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 향후 인류 언어·문화 다양성의 보고로서 《겨레말큰사전》이 남북, 해외 지역어를 보전하고 일반 국민의 언어생활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현장에서 사전을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을 하리라 믿는다.



↑ 고려인 1세대 어르신이 사시는 가정을 방문해 이주 초창기 시절 이야기를 녹취 기록했다. 사진 오른쪽 끝이 필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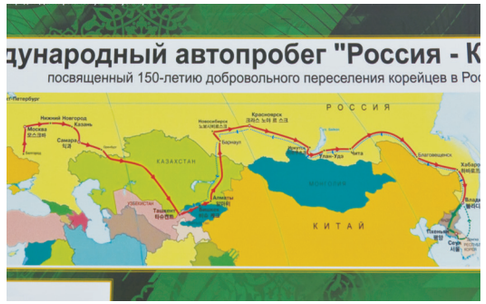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을 만나다

–고려인 이주 역사 160주년을 맞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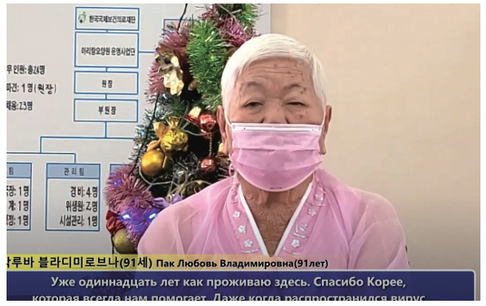
글 · 사진 **최희영** 기록문학가

'겨레말큰사전 편찬과 고려말'. 사업회는 2008년 7월 2일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이 같은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겨레말큰사전 남측편찬위원들은 현지에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과 만나 그들의 관습과 언어문화, 생활 양식과 이산의 한(恨)을 청취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힘을 모아 타슈켄트시 외곽에 고려인 1세대 노인들을 위한 '아리랑요양원'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

이 요양원은 그로부터 2년 뒤인 2010년 3월 개원했다. 고려인 어르신 40명가량을 모실 수 있는 이 복지시설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옛 유치원 건물과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 정부가 리모델링 예산과 향후 운영 책임을 맡는 형태로 문을 열었다.



↑ 1937년 강제이주열차 노선도



↑ 아리랑요양원 개원 초기부터 입주해 있었던 고려인 1세대 박루바 할머니



↑ 고국을 떠난 지 160년이 지났으나 전통방식의 장례문화를 고수하고 있는 고려인 장례식

고려인 박루바 할머니

나는 2020년 3월, 아리랑요양원을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의 의뢰로 이 요양원의 개원 10주년 기록집 출간에 참여하고, 기록 다큐를 제작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일년 내내 이 요양원을 수시로 찾았다. 제작물은 잘 완성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많은 수의 고려인 1세대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났다. 특히 2010년 개원 당시부터 이 요양원에 거주했던 1930년생 박루바 할머니의 타계는 내게 너무나도 큰 슬픔을 안겨줬다. 지금도 박 할머니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하다. 우리말을 잘하던 박 할머니는 1930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어나 일곱 살 때인 1937년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해서 처음엔 땅굴을 파고 살았다.

"우즈벡에 와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농장에서 일했고, 나에게는 5명의 여형제가 있었다. 1948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는 결혼해서 5명의 자녀를 두었다. 1980년 남편이 뇌출혈로 돌아갔고, 2007년엔 큰아들이, 2008년엔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떴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요양원엘 들어오게 됐는데 지금은 행복하다. 죽을 때까지 이 요양원에서 살고 싶다. 하지만 밤에는 종종 과거 죽은 자식들과 고생했던 시절이 떠올라 눈물이 나곤 한다."

– 조철현, 『고려인 디아스포라, 우즈베키스탄 아리랑요양원 10년의 기록』,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2020.

박루바 할머니는 아리랑요양원 어르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021년 고려인 공동묘지에 묻혔다. '조선사람'의 후예로 러시아 연해주 땅에서 태어나 '고려인'이란 별칭으로 80년 이상을 우즈베키스탄에서 살던 '한국 동포' 박루바 할머니의 마지막 안식처는 결



↑ 춤과 노래를 통해 한민족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



↑ 고려인들의 추석맞이 대축제

국 타슈켄트 고려인 공동묘지였다.

묘지 비석마다 K-디아스포라의 한이 사무친 이 안식처에선 매년 추석 때마다 우리네 전통 풍습이 재연된다. 고려인 가족들이 두 손 가득 음식을 차려 이곳을 찾는 이날만큼은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고려인들에게 특별 휴가를 제공한다. 따라서 추석은 오래전부터 고려인 공동체의 상징적 기념일로 정착됐고, 공동묘지에서 만난 고려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산 사람들의 안부까지 챙긴다.

아리랑요양원의 방명록

올해는 마침 고려인 이주 역사 160주년의 해다.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계봉우의 아령실기(俄領實記)에 따르면, 1864년 함경도 사람 최운보와 양응범이 농민 13가구를 이끌고 두만강을 건넜다. 한국과 러시아 학계는 이를 고려인 역사의 서막으로 본다. 그



↑ 2024년 추석을 맞아 한자리에 모인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



↑ 전통시장 초르수 1층에서 고려인 김치를 파는 고려인 아주머니

16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고려인들은 한민족 공동체만의 전통적인 의식을 지속해 왔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한 강제 이주로 우즈베키스탄에 정착한 고려인들 역시 뼈를 깎는 생활고 속에서도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존하며, 추석과 한식과 김치와 된장의 맛을 잃지 않고 살아왔다.

나는 8월 21일 다시 우즈베키스탄에 간다. 이번에는 한 달 정도 체류하며 기존에 썼던 우즈베키스탄 인문 여행서를 보완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고려인들의 추석맞이 대축제(9월 17일)에도 참여하려고 한다. 몇 해 전 타슈켄트 초르수 바자르에서 만났던 김치 파는 고려인 아주머니와 카라칼파크스탄 고려인 문화센터 고마리나 할머니, 그리고 고려인합창단의 김 할머니까지 그 잔치에서 만날 거란 기대감에 마음이 설렌다.

2009년 5월 11일, 황석영 소설가는 한창 공사 중이던 아리랑요양원을 찾아 '달 밝고 별 밝은 밤이면 수만 리가 한마을'이란 글을 방명록에 남겼다. 또 곽효환 시인은 2015년 7월 27일, 대학생 동북아대장정 일행들과 함께 아리랑요양원을 찾아 '절망을 딛고 일어서 삶을 개척한…. 그 아름다운 삶의 황혼을 길 내는 고려 사람들을 가슴에 담고 갑니다.'란 글을 남긴 바 있다. 이 두 작가의 짧은 글에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의 삶들이 함초롬히 잘 배어 있다. 이번 우즈베키스탄 방문길에도 아리랑요양원을 찾을 텐데 나는 방명록에 어떤 글을 남길까 고민해 본다. 8월 15일, 늦은 밤 고려인들을 기록한 사진첩을 펼쳐본다.



최희영

기록문학가. 현재 영상제작사 씨앤씨플랫폼, 도서출판 라운더바우트, 유튜브 방송 '최희영의 문학TV'의 대표를 맡고 있다. 라오스 기행서 『잃어버린 시간을 만나다』, 인천 골목 기행서 『삼치거리 사람들』, 우즈베키스탄 인문 여행서 『우즈베키스탄에 꽂히다』 등을 출간했다.

통일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



이번 기획특집의 주제는 '남북 전문용어'이다. 남북의 어휘 이질화는 일반어보다 전문용어에서 더 심각한 상황이다. 남북 어휘가 이질화된 원인을 살펴보면 분단으로 인한 이념 차이, 어문규범 차이 등을 뽑을 수 있다. 무엇보다 북이 강력한 언어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1948년 이후 '한자말정리사업'과 한자 사용 폐지를, 일제 강점기 사상 잔재 청산을 위한 '어휘정화사업'을 추진했다. 또 1960년대 중반에는 '어휘정리사업'을 본격화했다. 짧은 기간 북이 인위적으로 어휘를 변화시키면서 남북 어휘 차이는 더 크게 벌어졌고 전문 분야 용어는 새어휘로 재탄생했다. 특히 분단 79년간 남북 분야별 전문가 교류가 없었던 탓도 크다.

향후 남북 분야별 전문가 교류가 생기고 전문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문용어 이질화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다분하다. 남북 합의문 작성·해석 문제부터 업무 소통 문제까지 여러 난관에 부딪힐 게 분명하다. 더욱이 통일 이후에는 더 큰 시간적·비용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손실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정부(산하기관) 차원에서 분야별로 북한 용어집, 남북 용어 비교 자료, 용어 사전 등을 만들었다. 1970년대 이후 북한어 관련 자료를 축적해 왔고 남북 언어 비교 연구가 이뤄졌다. 연구자들은 남북 전문용어 차이를 줄일 방안으로 전문용어 표준화나 남북 전문용어 통합과 통일 절차 등을 논의했다. 사업회는 2015년 12월 공동회의에서 북측편찬위원회와 《겨레말큰사전》 편찬 후속사업으로 전문용어 사전을 편찬하자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사업회는 후속사업의 기초 작업으로 북한의 전문용어 자료 수집·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에 본지는 남북 전문용어 비교 연구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통일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얻고자 한다. 이번 기획특집 필진으로는 언어학계 신중진, 법조계 류지성, 과학기술계 최현규 등을 모셨다. 신중진(한양대학교)은 정부 산하기관의 남북 전문용어 구축 사업 현황을 소개했다. 그는 "남북 분야별 전문용어 사전을 구축하기 위해선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남북 전문용어 사전 구축 통합 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류지성(한국법제연구원)은 "남북 법률 용어를 통합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남북 법률용어 통합 기준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의 법률이 남한과 이질화되는 것은 결국 통일비용을 높이고 그 모든 단계에서 소통의 장애 및 사회적 비용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현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는 현행 남북 전문용어 비교 연구의 한계를 "남북의 교류 협력이 없는 상황에서 비교 연구의 결과물에 북한의 언어 자원을 활용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남북의 언어 자원(전문용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데이터 운영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남북 전문용어 사전 통합 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1)]

글 **신중진**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오늘날 남북 관계가 단절을 넘어 적대시됨에 따라 관련 성과도 극도로 냉각되었다. 그러나 시야를 넓혀보면 분단 이후 70여 년 동안 남북의 언어 이질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면서 남북의 언어를 비교 통합하는 성과들이 이어졌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문용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남북 전문용어와 관련한 연구들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대표적으로 국립국어원의 연구 사업이 꾸준하였고, 2022년에 사업회도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남북 도로 분야 전문용어 사전 편찬을 위한 협약을 진행한 바가 있다.

통일을 대비한 남북 전문용어 사전

한편 정부 부처의 각 산하기관에서도 해당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사전 작업을 이미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이다. 2019년 7월에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남북한 수산 전문용어 비교집》을 펴낸 바 있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남북 산림용어 대사전》을 기획하여 사전 편찬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들이 해당 기관과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하나둘 모이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러한 성과물들을 잘 보관하고 향후 통일에 대비한 작업들로 연결시켜야 한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진행된 몇몇의 성과물을 살펴보면 각각의 사업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형식의 성과물들이 도출되고 있다. 남북 전문용어 관련 연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은 그 기본 대상인 남한 전문용어와 북한 전문용어를 표준 절차에 따라 수집 관리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자료들을 집대성하여 통일을 대비한 전문용어 사전 편찬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

1) 이 글은 2020년 《한국사전학》 35호에 실린 「남북 전문용어 연구를 위한 절차적 방법 연구」를 바탕으로 지금의 상황에 맞게 덧보태면서 간추린 것임을 밝힌다.

남북 전문용어 비교와 통합 성과

우선 정부 소속 기관에서 진행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남북 전문용어 관련 사업들의 성과물을 살펴보자.

〈표〉 분야별 남북한 전문용어 관련 사업(2015년 이후)

번호	제목	기관명	결과물	발간 연월	용어 수(개)
1	북한건설용어집	국토교통부	단행본	2015.5.	5,364
2	2015년도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 촉진사업 결과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단행본	2015.12.	7,181
3	남북법률용어 비교자료집	법무부	단행본	2016.12.	157
4	남북한 도로교통용어 비교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게시	2018.3.	139
5	남북교통용어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미상	78
6	남북철도용어 비교 사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단행본, 웹 블로그	2018.11.	1,680
7	남북한 수산 전문용어 비교집	국립수산과학원	단행본	2019.7.	1,043
8	남북산림 용어비교집	국립산림과학원	단행본, 홈페이지 게시	2021.12.	2,290
9	남북 고고학 용어 비교집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정	2025년 예정	–

그동안 남북 전문용어 구축 사업은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다. 〈표〉는 2015년 이후 진행된 남북 전문용어 관련 성과들이다.[2)] 이 성과들은 용어집, 자료집, 사전 등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는데 그 이름만큼이나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모두 사전으로 보는데 이 사전들은 표제항의 구성 정보 등을 기준으로 '병렬 구성, 뜻풀이 포함 구성, 백과사전식 구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진전된 방향의 구성인 백과사전식 구성은 《남북법률용어 비교자료집》에서 볼 수 있다. 이 사전에서는 남한의 법률용어에 대응하는 북한의 법률용어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백과사전식 기술을 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남한과 북한의 법률 조문을 모두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 편의성이 돋보인다.

2) 코로나 창궐이 한창인 가운데 2021년도에는 《남북의료용어집》과 《남북감염학용어집》이 전문용어 비교와 통합을 위한 사전으로 발간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전문용어 사전들은 그 한계점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첫째, 뜻풀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둘째, 뜻풀이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 셋째, 전문 분야 분류가 혼재되어 있다. 넷째, 용어집 편찬 목적과 사용자 설정이 명확하지 않다. 다섯째, 편찬 관련 '일러두기'가 대부분 없다. 여섯째, 각각의 방법론으로 제작되어 통합된 남북 전문용어집 구축이 어렵다.

남북 전문용어 통합 사전 편찬 방향

향후 진행될 남북 분야별 전문용어 사전 구축은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제 남북 전문용어 사전 구축 통합 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그 지침은 〈ISO 15188:2001〉에서 제시하고 있는 절차적 방법론을 참고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ISO 15188:2001〉은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지침이다. 이들 규범에서 제시된 Preparation(준비) → Design(설계) → Implementation(실행) → Review, evaluation and verification(평가, 검토)를 변형하여 남북 전문용어 사전 구축 지침은 '준비→ 계획 → 실행 → 유지 · 관리'의 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

준비 단계는 다시 ①사전 준비와 ②연구진으로 세분된다. ①사전 준비에서는 첫째, 사업의 실행 목적과 그에 따른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다. 전문용어 사전 편찬의 목적은 사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사업 성과물의 사용자를 분석하고 그들의 요구를 확인한다. 사용자를 분석하는 일은 전문 분야의 범위를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되며, 전문용어 표제항을 구성하는 미시 정보 설정과도 관련이 된다. 사용자에 따라 요구하는 정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 단계에서 그 요구를 확인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②연구진에서는 사업을 수행할 연구진을 구성하고 업무 분장을 진행한다. 사업을 수행할 연구진으로는 '사업 책임자, 전문 분야 전문가, 용어 학자, 실무 간사, DB 구축 전문가'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DB 구축 전문가는 '전문용어 목록 관리, 서비스 방식 구현, 사후 DB 유지 관리' 등의 역할을 맡는다.

계획 단계는 ①단계별 계획 및 일정 수립과 ②전문 분야의 범위 설정과 구분으로 나뉜다. 우선 ①단계별 계획 및 일정 수립에서는 사업의 거시적인 진행 단계를 설정한다. 사업 일정, 사업 목표별 단계, 기간 설정 등이 그것이며 나중에 사업 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자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 진행 단계를 설정하였다면 이에 따른 세부 계획을 설정해야 한다. 세부 작업들은 'DB 구축, 남북 전문용어 정비 방법론, 학문적 연구 분석'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각 작업들에 대한 계획 또한 설정해야 한다. 특히 남북 전문용어 정비 방법론은 남북 전문용어집 구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자료 수집에서부터 용어 추출, 목록 구성, 형식 정비 등의 계획을 세부 지침 등의 형식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전문 분야의 범위 설정과 구분은 전문 분야 분류와 관련한 내용이다. 전문용어는 전문 분야를 구성하는 지식 체계이므로 분야의 분류는 지식 체계의 분류와 같다. 특히 남한의 전문 분야 분류법과 북한의 분류법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계획 단계에서 미리 분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 새로운 분야 분류를 도입할 수도 있으며, 기존에 사용되던 방식인 '학문분류표, 한국십진분류표, 국가과학기술 표준 분류체계'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

실행 단계는 계획 단계에서 수립한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이다. 사업의 세부 목표에 따라 작업이 실시되며,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작업의 진척 사항 등을 연구진 간에 공유하며, 작업 진행의 애로 사항 및 참고 사항을 정리하고 해결한다.

마지막은 유지·보수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그간 진행되어 온 전문용어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다. 전문용어 역시 언어의 일부이므로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겪게 된다. 그 과정에서 전문용어의 개념과 형식이 변화하기도 하며, 전문 분야를 넘나들며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양상을 추적하고 기록하여 DB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언어의 변화를 추적하고 관찰하기 어렵듯이 전문용어 역시 그러하다. 여기서는 전문용어의 변화보다는 생성과 소멸에 초점을 두어 이 단계를 설정한다. 이 단계의 첫 번째는 ①전문용어 관리 자문단 구성이다. 이 자문단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기적인 자문회의 개최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자문회의 개최로 심의된 전문용어를 추가하고 삭제하여 고지하는 일이다. 또한 소멸되거나 필요성이 없어진 용어를 선별하는 일 또한 진행한다. ②전문용어의 유지·보수에서는 전문용어 관리 자문단의 자문회의에서 심의할 전문용어를 수집하고 추출한다. 또한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된 세부 영역을 확인하여 기존 DB에서 확인한다.

지금까지 남북 전문용어 통합 사전 구축에 필요한 지침을 단계별로 소개해 보았다.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표준적인 절차이므로 다소 추상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개별 분야 전문용어 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조정하고 세부 절차 지침으로 이어져야 한다. 참고로 남북의 사정과 비슷한 점이 있는 중국과 대만이 《양안과기상용사전(兩岸科技常用詞典)》(2017)으로 양안 전문용어를 통합한 작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중진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저서로는 『개화기국어의 명사 어휘 연구』, 『이중모음』(공저) 등이 있으며, 논문은 「'두드러기'의 형태사와 그 방언형 연구」, 「한국 근대 초기의 '洋' 관련 서구문명 어휘에 대하여」, 「통시사전 기술 방향 연구」, 「을사본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의 국어학적 고찰」 등 어휘사나 남북 전문용어 및 고문헌 자료에 관한 70여 편이 있다.

남북한 법률 이질화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글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팀장



필자가 북한법을 처음 접하였을 때 법조문에 나타난 이질성을 보고 대단한 충격에 휩싸인 기억이 있다. 북한 법조문뿐만 아니라 남북 간 체결한 합의서를 보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합의서 말미에 합의문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한 해제가 첨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상적인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남북 주민 간 합의인 법 제도의 형성에서부터 당장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았다. 어쩌면 남한 버전과 북한 버전의 두 가지 법조문이 필요하게 될지 모를 일이다.

남북 법률용어의 이질화 원인

남북한 법률용어의 이질화는 왜 이토록 심화되었을까? 남북한 법률용어에 나타난 차이는 크게 두 가지에 기인한다고 본다. 하나는 언어 그 자체에서 기인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법률 체계 정착 과정과 정치 사상적 측면에서 나타난다.

먼저 언어 그 자체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이 분단 이후 남북 간 언어 차이를 반영하여 어문규범이 달라짐에 따라 이질화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어문규범은 1909년 〈국문연구의정안〉에서 시작하여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을 공표한 이래 남북이 분단되었다. 이후 남한에서는 조선어학회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이 여러 번 개정되어 1988년 정부가 고시한 현행의 〈한글 맞춤법〉이 적용되게 되었다. 이는 「국어기본법」 제11조의 위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행정규칙으로서의 법적 위상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의 법률용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 제172조에 따라 평양에서 사용하는 표준어를 문화어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우리의 「국어기본법」과 같은 법률은 없으나 법률 제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제정법」 제69조에서 법문건의 언어로서 조선어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는 등 개별 법률에서 비슷한 규정을 갖고 있다. 한편 어문규범은 분단 이후 1948년에 〈조선어신철자법(朝鮮語新綴字法)〉과 1954년 〈조선어 철자법〉, 1966년에 〈조선말규범집〉을 공포한 이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즉, 법적 근거와 어문규범에서 남북의 이질화는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법률 체계의 차이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사회주의 법체계 특히 마르크스레닌주의(Marxism-Leninism)의 영향에 따라 법체계가 형성되었고 사회주의에서 법은 정치의 도구라는 측면이 자리하게 되었다고 본다. 북한은 정권 수립 초기부터 사회주의법 제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강화해 나가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취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주의 이념이 법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사상적·철학적 토대 속에서 법률용어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법률용어는 이데올로기적 성질과 대중에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통속성'의 원칙이 반영되었고 일상어와 순우리말이 그대로 사용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남북 법률용어의 접근 가능성

남북의 법률용어를 살펴보면 언어적 뿌리가 같다는 점과 각자 법률용어의 사용과 정비 기준에서 동질성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접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법률용어의 사용에 있어 일반적인 기준 외에도 주요한 공식적 기준으로서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은 공통적으로 한글화,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의 장려, 일본식 한자어 사용 지양을 제시한다.

북한은 법률용어 사용에 대해 우리와 같은 정도의 법적 기준을 갖추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사회과학원에서 발간한 『사회주의법제정리론』에서 "법의 언어표현"과 논문 등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한의 권위 있는 법률용어 사용 기준은 공통적으로 알기 쉬운 우리말 사용을 제시하면서도 정확하고 전문적인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최근의 북한 입법은 예전과 달리 '장'과 '절'을 두고 '조문의 제목'을 다는 등 남한 법률의 외형과 유사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라 하겠다. 과거 남북 간 경협이 이루어질 때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법제를 제정하면서 남북은 입법 협력을 한 바 있다. 현재 북한 입법의 외형 변화는 우리와의 입법 협력에 의한 영향이었던 것은 아닌지 판단해 볼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정상국가화'를 추구하면서 국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하여 법치가 통용되는 사회를 표방하여 결국 법제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지점에서 언어 통합을 위한 토대로서 겨레말 연구, 공동 사전 편찬, 어문규범 통합을 연계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화된 기구의 활성화와 준비, 국내법의 정비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률용어 연구 현황

현재 우리 법학계에서 북한의 법률용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민간, 공공기관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법무부가 2016년, 2017년에 《남북법률용어 비교자료집》을 발간하였고, 민간에서는 국민대 장명봉 교수가 2005년에 『조선법전 법률용어 풀이』, 2018년에 『최신 북한법령 용어풀이』를 발간한 바 있다. 공공기관으로서 한국법제연구원은 2002년~2004년에 『북한법률용어의 분석』(1~5)를 비롯하여 『북한법률용어의 분석』(헌법편, 형사법편, 민사법편, 상사 및 대외경제개방법제편), 2017년과 2020년에는 《북한법률용어사전》을 발간하였다. 이러한 서적들은 연구라기보다는 용어 그 자체에 대한 해제나 비교를 한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한 것은 2020년 한국법제연구원 「남북법률용어 통합방안 연구」가 있으며 이어 법제처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 「남북법령용어 통합의 기준과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2021), 「행정·안전, 국토·환경, 교통·운수, 농업·수산 분야 남북한 법령용어 비교·분석연구」(2022) 등이 있다.

여타 법학 연구를 찾아보면 남북 법률용어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현황과 과제를 진단한 정도로 북한의 법 자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거나 남북 간 법제 분야 협력 연구에서 법률용어에 대한 언급이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법학계 입장에서 연구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는 연구 분야이고 기초 연구라고 여기기 때문으로 진단된다. 국어연구 그 자체에서 법학과의 학제 간 연구 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남북 법률용어 통합의 기준

남북 법률용어를 통합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으로서 필자는 그간 체결하여 온 남북 합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할 것, 국제적 기준과 번역으로서 남북이 동일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경우 조약문을 각각 어떻게 번역하였는지를 살피고, 남북 관계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 어느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인지를 살피는 '언어 경제적 기준' 그리고 최근 잘 정비된 북한법에 사용된 법률용어도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제정된 북한법은 남북 간 경협이 활성화되었던 시기 우리의 선진화된 입법 기술이 도입된 산물이고 이는 신법으로서 북한의 구법에 대한 정비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 체계와 관련 법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남북 법률용어 통합의 과제

법률이란 사회상과 그 사회를 구성하는 주민의 의사와 합의를 나타낸 것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남북은 역사적·언어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시작된 민족 문화의 공동체로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용어는 법률을 구성하는 기본단위이고 기초이므로 남북의 법률용어가 이질화된다는 것은 법률의 이질화로 연결되고 상호 의사의 합치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된다. 또 북한의 법률이 남한과 이질화되는 것은 결국 통일비용을 높이고 그 모든 단계에서 소통의 장애 및 사회적 비용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바 필자는 각 개별 전문용어에 대한 연구와 통합 노력에 있어 기본적으로는 언어의 이질화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국어학계, 국립국어원, 사업회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는 것의 유효성을 제기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추진체계의 안정화와 관련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는 「남북(법률)용어통합사업법」을 제정하고 민간에서도 이를 연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 남북법령정보 홈페이지 구축 또는 현행 국가법령정보사이트에서 북한법령의 제공과 함께 법문에 나타난 용어의 해제를 동시에 제공하여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팀장. 2015년 일본 츠쿠바대학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6년 한국헌법학회 신진학술상, 2022년 한국법제연구원장 표창, 2023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대통령) 표창 등을 받았다.

남북한 전문용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글 **최현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위원

남북 전문용어 연구 및 구축은 남북 간의 교류가 진행되고 향후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전문용어의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의 불편이나 어려움 등 사회적 소모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하였다.
남북 과학기술 분야 전문용어 비교 연구를 통한 구축은 1990년대 후반에 몇몇 학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각 학회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다가 2000년대 초반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총괄하여 2005년에 각 과학기술 분야별 용어 비교 자료집이 발간되었다.

남북 전문용어 연구가 미약한 과학기술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발간한 《남북과학기술 용어집》은 13권(분야별 발간)의 책과 CD롬판까지 발간하였다. 수록 분야는 물리학, 화학, 농학, 수학, 생물학, 금속공학, 정보공학, 건축공학, 지질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이다.
《남북과학기술 용어집》은 처음으로 체계화된 방식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가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과의 협력으로 이뤄지지도 않았고 용어 자체도 입수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애로가 많았다. 그 결과는 분야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여 비교 과정의 오류가 상당했다. 또한 전문용어에 관한 기초 연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야별로 접근한 것이라 전체적으로 기준점이 없는 등 많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
남북의 전문용어 비교 연구 작업은 남북의 교류 협력이 활발할 때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진전이 있거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또한 해설이 없는 용어집 발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전문용어의 비교연구가 과학기술계에서는 미약했다.
여러 분야로 확대되지는 못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남북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기초 과학(물리, 화학, 생물) 및 축산 분야의 남북 용어 비교 연구를 한 것이 최근의 남북 용어 부문의 성과이다. 그 후 금속재료까지 비교 연구를 하였다. 그중에서 강원대학교 성경일 교수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과제 후속으로 발간한 《남북한축산용어집》(2022)은 용어의 해설도 포함한 우수 성과물이다. 그 외에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종전의 남북 협력과 선행 연구 등을 토대로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용어를 북한이 발간한 자료와 비교한 성과가 있다.

전문용어의 비교 연구를 위한 어문학적 기초

남북 간의 전문용어 비교를 위한 연구는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여 2015년 이후에 진행되었다. 국어학자들의 참여로 전문용어 비교를 위한 어문학적 기반을 갖추기도 했다. 과학기술 전문용어에 관한 기반은 국어학자인 한양대학교 신중진 교수 등의 「과학기술 전문용어 남북 비교에 대한 연구」와 과학기술계의 최현규 KISTI 책임연구원 등의 「남북 과학기술 분야 학술용어 비교 조사 연구」 등을 통해 이뤄졌다. 과학기술 분야 전문용어의 비교 연구를 위한 어문학적 기초가 놓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 과학기술 분야 전문용어의 대체적인 어문학적 차이는, 첫째 띄어쓰기의 경우 남한은 북한에 비해 띄어쓰기를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면, 가상 현실(남), 가상현실(북), 공장 자동화(남), 공장자동화(북) 등이 그 사례이다. 둘째로 외래어 표기도 상당수 다른 형태로 기록하고 있는데 'graph'의 경우 그래프(남), 그라프(북)로 적고 있으며, 'program'은 프로그램(남), 프로그람(북)으로 적고 있다. 셋째 사이시옷의 경우 남한에서는 '10진 숫자' 등으로 사이시옷을 포함한 반면 북한에서는 '10진 수자'와 같이 사이시옷 없이 적는다. 그 외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두음법칙은 남북이 다른 문법을 사용하는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숫자 독음의 경우 남한은 '3상태 장치' 등과 같이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사용하는데 북한에서는 '세상태장치'와 같이 순우리말로 적고 있다.

남북 전문용어 통합적 기준이 없지만 용어 해설이 필요하다

남북 전문용어 비교 사전은 〈표〉와 같이 학회보다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을 통해서 남북 전문용어 관련 결과물들이 나왔다. 이 결과물에는 사전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용어의 해설 설명문 없이 전문용어를 단순 나열했거나, 설명문만 붙인 사전의 형태가 있다. 대체로 한국어(남)–조선어(북)–영어의 대비 파일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합적 기준은 없었다.

〈표〉 남북한 전문용어 비교 성과물 최근 사례(일부)

번호	제목	기관명	결과물	발간	용어 수(개)
1	북한건설용어집	국토교통부	단행본	2015.5.	5,364
2	남북한 도로교통용어 비교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게시	2018.3.	139
3	남북교통용어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미상	78
4	남북철도용어 비교 사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단행본, 블로그	2018.11.	1,680
5	남북한 수산 전문용어 비교집	국립수산과학원	단행본	2019.7.	1,043
6	남북산림 용어비교집	국립산림과학원	단행본, 홈페이지 게시	2021.12.	2,290

또한 약물 기호, 기호 등 사전과 같은 기초적인 구성을 나타내기도 하나 세부 기술 분야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남과 북의 용어가 형식적으로 다른 용어만 나란히 배열하였고, 전문용어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세부 분야의 일관성 및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하며, 연관 분야와의 연계 등이 되어 있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분야별 남북 용어 비교에서 용어 해설도 포함하며, 북한의 학술용어와 국내 학회에서 발간한 용어 사전을 충실히 반영한 대표적인 것이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천문학회가 발간한 《남북한 천문 용어 사전》(2021)이다. 부록으로 '남북 별자리 비교표'도 부가하는 등 남북의 용어 차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한국도로공사가 현대경제연구원, 한국토목학회와 공동으로 발간한 《남북 도로분야 전문용어사전》(2023)도 단순 용어 대비가 아닌 체계화된 용어 사전으로 평가된다.

남북 과학기술 분야 통합 어휘자원 플랫폼

남북 과학기술 전문용어를 디지털화한 시작점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13개 분야의 용어집을 통합하여 CD롬 타이틀로 만든 것이다. 하지만 수록 내용이 엑셀형 파일이나 PDF 파일로 되어 있어서 검색형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 형태였다. 그 이후에도 다양한 남북 전문용어 연구 성과가 나왔지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철도 분야 남북용어'를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한 것이 특정 분야에서 적용된 하나의 사례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남북 협력과제로 수행한 여러 분야의 전문용어 비교 성과물들이 KISTI의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웹사이트를 통해 통합 검색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일부 과학기술 분야만을 포함하는 등 부족한 점이 있으나 그나마 검색 가능한 체제에서, 표준 과학기술 분류 체제에 따른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남북 전문용어 비교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남한의 기술 용어가 표준화 또는 통합되어야 하나 학계의 여러 사정으로 용어 표준화를 이루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그리고 학회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용어위원회 운영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 전문용어 관련 연구와 조정 작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남북 비교를 위한 우리 측 자료가 있기는 하나 최신화되지 못하기도 했고, 용어 표준화가 되지 못했다.

그리고 북한의 전문용어는 해당 분야별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비하지 못하였다. 이는 북한의 용어를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고, 비공식적으로나마 북한의 언어 자원을 확보하여 운용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다. 남북의 교류 협력이 없는 상황에서 비교 연구의 결과물에 북한의 언어 자원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용어 비교 차원에서는 문제의 소지는 적으나 사전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데이터 운영 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남북 전문용어 비교 연구 성과물이 여러 형태의 책자로 발간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며, 그 결과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재활용 가능한 구도로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용어집이 일회성으로 발간되고, 그 후에 업데이트되거나 병행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데이터의 현행화를 하고자 해도 할 수 있는 기반 즉, 플랫폼 같은 형태가 갖춰지지 않아 선행 연구성과물의 활용이 매우 어렵다.

그리고 남한의 통합 어휘자원과 북한의 디지털화된 용어집마저도 활용할 수 있는 체제가 구비되지 않아 매번 새로이 작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따라서 아래 그림의 예시와 같이 남–북–영 전문용어 대역을 위한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전문용어 비교 작업은 의사소통 면에서 과학기술자뿐만 아니라 기업인, 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서 남북 간 의사소통을 촉진할 것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적 이해를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며, 지금의 남북 상황이 녹록지 않으나 여건 변화 시 과학기술계의 수요에도 대비할 수 있다. 공동 활성화를 지원하고 또한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 남북 전문용어 비교 조사 및 어휘자원 플랫폼 모델 예시

그 외에 교육적 측면에서의 활용이 크게 기대될 수 있다. 남북이 같은 문자를 사용하고 서로 다른 언어가 아니므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전문용어학이나 사전학 등에 기여하고, 자연어처리(NLP)와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학습을 할 수 있다.



최현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전문위원으로,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분석시스템을 개발한 북한 데이터 전문가로, 북한 과학기술 연구자이다. 연구보고서로는 「북한 과학자의 국제학술논문(SCI) 분석 연구」, 연도별 「북한 ICT 동향조사」, 「북한의 학위·학직자 현황분석」 등이 있다. 북한 과학기술 동향분석과 조사연구에 중점을 두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의 과제 수행과 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그 공로로 대통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의 표창을 받았다. 연구모임인 북한ICT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고,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디지털 통일을 탐구하다

글 김성우 한림대학교 미래융합스쿨 디지털인문예술전공 부교수



남북은 분단 80년에 다다르고 있다. IT와 융합 디자인 분야인 UX(사용자 경험, User Experience)를 전공한 필자가 '통일 디자인' 이라는 명칭으로 2016년에 연구실을 차리고 첫 대학원생을 모집했을 때만 해도 '분단 70년'을 주제로 여러 행사와 심포지엄이 열렸다. 그래서인지 한동안 '분단 70년'이란 표현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운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 이제 분단 80년이라 표현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통일이 원래부터 요원한 뉘앙스를 띄고 있긴 했으나 지금의 남북 관계와 국내외 정세를 볼 때 10년 전에 비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참고로 통일 디자인은 통일 전중후(前中後) 시점에서 디자인이 남북의 평화 체제 구축과 남북 주민 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탐구해 보는 분야이다.

평시 통일 준비는 각자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준비할 수 있는 바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라는 견지를 가진 필자는 통일 디자인의 테마 속에 IT, UX,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등을 토대로 현재 디지털 통일을 탐구하고 있다. 아직 초기 단계라서 개념 정립부터 필요한 디지털 통일을 조잡하게나마 정의해 보면 '통일 분야의 디지털 대전환' 정도가 될 것이다. 이 거친 정의에는 눈깜짝할 사이에 분단 70년이 80년으로 바뀌고 통일의 요원한 뉘앙스가 더욱 강해지면서 통일을 더욱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 속에 잘파세대[1]와 같이 디지털 네이티브를 넘어 AI 네이티브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통일의 과업이 이어지게 하려면 지금의 통일에 입혀져 있는 여러 구닥다리 이미지를 벗겨내고 디지털과 AI로 새롭게 단장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한몫한다.

생성형 AI와 통일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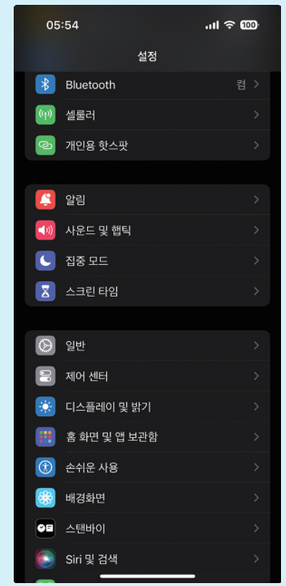
작년에 우연한 기회로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통일 디자인 씽킹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이미지 생성형 AI가 그리는 참신한 통일 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한 바 있다. 통일 포스터 그리기는 통일 이벤트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코너로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젊은 세대에게 식상함을 주는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호랑이', '한반도', '철책선', '악수', '비둘기', '한반도기'와 같은 소재가 너무 오랫동안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쓰이면서 젊은 세대에게는 '기성세대만이 그리는 통일'의 클리셰[2]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통일 디자인 씽킹 워크숍의 공모전에서는 클리셰로 여겨지는 기존의 소재를 일체 배제하고, 디자인 씽킹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게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포스터를 그리지 않고 프롬프트로 이미지 생성형 AI를 가이드하여 인공지능이 통일 포스터를 제작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였다. 이벤트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특히 팀 단위로 공모전을 진행함에 따라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고 AI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논의하였고 자연스럽게 통일교육 학습 효과마저 거둘 수 있었다.

오래된 숙제 – 남북한 IT 용어와 자판 배열 차이

그렇지만 AI와 같은 첨단 기술만이 디지털 통일의 대상물은 아니다. 분단 80년의 역사 속에 IT에서도 먼지가 계속 쌓이면서 해결을 기다리는 숙제 꾸러미가 있다. 이 중에 세대가 바뀌어도 영속되는 숙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해결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숙제는 남북한 IT 용어 차이와 자판 배열 차이가 있다.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첫 단추로 해당 분야의 남북한 용어 비교집을 만드는 과제부터 수행할 만큼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는 통일 문제에 있어 늘 큰 관심을 받는 사안이다. IT 분야에서도 남북의 용어나 표현에 차이가 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이미지와 영상이 대세라는 오늘날의 IT 미디어 산업에서도 텍스트는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비교적 최신 스마트폰의 UI에서도 텍스트는 지배적인 정보 전달 수단으로 쓰인다.

과거에 필자가 북한 스마트폰의 UX를 연구하면서 남북한 스마트폰에 쓰이는 용어와 표현을 비교해 본 바 있다. 남북의 폰이 동일한 안드로이드 기반인데도 여러 곳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당시 연구의 실험 참여자였던 남한의 20대 젊은이들 상당수는 '손전화'와 같이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한두 개 단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북한 스마트폰의 용어/표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 애플 아이폰 15의 설정 화면

북한 스마트폰 UI에 사용된 용어/표현의 특징은 국어로 순화된 외국어가 많다는 점이다. 북한의 반미 성향 및

1) Zalpha Generation, MZ의 Z세대와 그 뒤를 잇는 알파세대를 포괄하는 명칭이다.

2) 프랑스어 'cliché'는 남용한 결과, 의도된 힘이나 새로움이 없어진 진부한 상투구, 상투어·표현·개념 등을 일컫는다.

그들 특유의 '우리 방식대로'인 민족주의적 경향이 적극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한은 과거 피처폰[3]에 비해 외래어/외국어의 사용이 더욱 늘어났다. 이는 스마트폰의 양대 플랫폼 구글과 애플이 미국 기업이라 운영체제에서 쓰이는 용어를 한국어로 전환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남북의 성향적 차이로 인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IT 용어는 시간이 갈수록 더 차이가 증대될 것이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계속 등장할 각종 스마트 디바이스 나아가 AI 세계의 용어/표현에서 지속적으로 남북한 언어 차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업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표〉 남북한 스마트폰에서의 용어 차이

남	북
휴대폰	손전화
사진, 갤러리	화상서고
Safari, Chrome (웹브라우저 상품 브랜드명)	열람기
웹 페이지	웨브페지
(페이지를) 표시하다	현시하다
(웹브라우저에서 정보나 웹페이지를) 찾다, load	적재하다
키보드	건반
메시지	통보문
화면잠금	화면열쇠

남북한 스마트폰 UX의 비교 연구에서 두드러진 차이점으로 규명된 것에 자판 배열이 있다. 남한은 피처폰 시절부터 브랜드에 따라 천지인이나 KT나랏글과 같은 단축형 자판 배열을 제공했고,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온 이후에는 컴퓨터용 키보드와 동일한 두벌식 쿼티(QWERTY) 자판까지 제공한다. 최근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쿼티 자판이 점차 대세로 잡혀가고 있다고 한다. 바로 이 쿼티 자판에서 남북의 차이가 나는데, 북한의 스마트폰에는 일명 '국규 자판'이 탑재되어 있다. 얼핏 보면 두벌식과 동일해 보이나 자세히 살펴보면 'ㅁ', 'ㅈ', 'ㄴ' 등의 일부 배열이 다르다. 이처럼 남북은 정치,



↑ 남한의 두벌식 자판(왼쪽)과 북한의 국규 자판(오른쪽)

3) 피처폰(feature phone 또는 featurephone)은 스마트폰 대중화 전에 사용하던 최저성능의 휴대 전화이다. 1990년대 후반 이동통신의 발전과 함께 등장했다가 2011년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시장에서 사라져갔다.

경제, 국토만 분단된 게 아니라 IT의 가장 기본인 텍스트 입력 UI도 분단 상황을 겪고 있다.

텍스트 미디어가 건재하듯 텍스트 입력은 오늘날에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보 입력 방식이다. 최근 IT 산업의 지배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챗지피티(chatGPT)와 같은 LLM 기반의 생성형 AI도 텍스트 프롬프트로 인간과 상호작용을 한다. 멀티미디어, 음성인식, XR 같은 최첨단 실감형 미디어가 대중화되어도 여전히 텍스트 입력은 가장 대중적인 정보 입력 방식의 하나로 계속 애용될 것이다.

한글의 자판 배열은 1990년대 두벌식과 세벌식의 논쟁에서 볼 수 있듯 생산성, 브랜딩, 특허, 사용의 편의성 등 여러 사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대표적인 한국어 정보처리의 쟁점이다. 자판 배열은 기술적 영역을 넘어 이용자의 오랜 사용 행태와 직결되는 사용자 경험 영역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때 완성형과 조합형이라는 한글 코드 방식이 부딪치다가 기기의 메모리 용량이 증대하고 두 방식을 모두 담은 유니코드(Unicode)가 각종 운영체제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술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과 차이가 있는 대목이다.

남한은 사실상 두벌식으로 통일이 되었다고 볼 때 향후 북한과의 자판 배열의 통일은 한국어 정보처리 분야의 장기적 숙제가 될 것이다. 북한의 '국가 규격(국규)'은 우리의 '국가 표준'에 해당되지만 탈북민의 증언을 감안해 보면 외국에서 제조된 컴퓨터를 직수입해 오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북한에서 남한의 두벌식 자판도 은밀히 널리 사용한다고 한다. 그간 컴퓨터와 같은 전산 시스템에서 남북 간 통일 한글 입력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이를테면 조석환 박사가 개발한 '한겨레 통일 표준글자판'이 있다. 남북한의 자판 배열의 통일은 '작은 부분에서의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한반도의 IT 커뮤니티가 함께 풀어가야 할 도전 사안이다. 이런 작은 노력의 결실이 모이면 티끌 모아 태산처럼 생각보다 빠르게 숙제가 풀리고 남북 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디지털 통일의 탐구

다음 세대에게 완전한 삶의 일상으로 자리 잡을 디지털과 AI를 통해 그들이 한반도 통일의 가치를 잘 이해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은 통일을 향한 중요한 차세대 발걸음이다. 통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그들이 미래의 디지털 기술과 AI의 힘을 빌려 기성세대가 상상조차 못했던 혁신적인 통일 담론이나 방식을 창안해 낼지 모른다. 디지털 통일은 단순히 통일에 IT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을 넘어 패러다임의 대전환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통합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김성우

한림대학교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하고 조지아텍에서 정보 디자인 & 기술 석사,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에서 정보시스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UX를 전공하여 미국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삼성전자 · 필립스 디자인 · KT 등에서 UX 디자인과 R&D를 수행했다. 이후 국민대학교 TED 스마트경험디자인학과를 거쳐 현재 한림대학교 미래융합스쿨의 디지털인문예술전공 부교수로 재직하며 디자인이 통일 전 · 중 · 후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한 주민 간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통일 디자인을 탐구하고 있다.

피리

글 **박샛별** 겨레말큰사전 선임편찬원

‘피리’는 악기의 하나로 기존 남북 국어사전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표준국어대사전(웹)》

「1」『음악』 구멍이 여덟 개 있고 피리서를 꽂아서 부는 목관 악기. 향피리, 당피리, 세피리가 있다.
「2」『음악』 속이 빈 대에 구멍을 뚫고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고려대한국어대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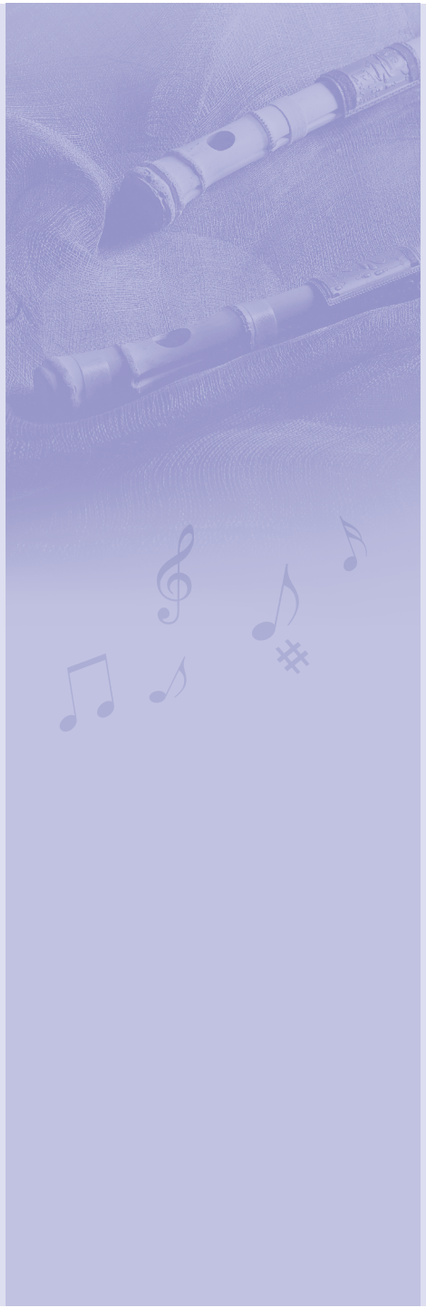
(1) [음악] 관에 구멍을 뚫고 불어 소리를 내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음악] ‘리코더(recorder)’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3) (기본의미) [음악] 관에 피리서를 꽂아 세로로 부는, 여덟 개의 구멍이 있는 목관 악기. 향피리, 당피리, 세피리가 있다.

《조선말대사전(2017)》

① 민족음악에서 쓰는 목관악기의 하나. 구멍이 뒤에 1개, 앞에 7개 있으며 악기의 쌍혀를 입에 물고 불면서 구멍들을 열었다 막았다 하며 음정을 조절한다.
② 《속이 빈 대에 구멍을 뚫고 입김을 불어넣고 소리를 내는 악기》를 두루 이르는 말.

국어사전에서 ‘피리’는 ‘향피리, 당피리, 세피리를 이르는 목관 악기’와 ‘속이 빈 대에 구멍을 뚫고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로 뜻풀이되어 있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웹)》, 《조선말대사전(2017)》과 달리 ‘리코더(recorder)’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로도 ‘피리’를 뜻풀이하고 있다.
‘피리’는 넓은 의미로 속이 빈 대에 구멍을 뚫고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총칭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통악기인 단소, 대금, 태평소 등과 서양악기인 플루트, 피콜로 등도 피리로 볼 수 있으며 ‘리코더(recorder)’도 이 의미에 포함된다. 좁은 의미로 ‘피리’는 우리나라 전통 관악기인 ‘향피리’, ‘당피리’, ‘세피리’만을 뜻한다. ‘향피리’, ‘당피리’, ‘세피리’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통 관악기로 뒤에 한 개, 앞에 일곱 개의 구멍이 있고, 리드([영]reed)[1]를 꽂아서 세로로 부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피리’의 뜻풀이를 깁고 더하면 다음과 같다.[2]

1) ‘리드’는 남에서는 ‘서’라고 하고 북에서는 ‘혀’라고도 한다.
2) 본문에 제시된 뜻풀이는 글쓴이의 견해로, 《겨레말큰사전》 집필 원고와 다를 수 있다.



피리 [명] 《음악》
① 뒤에 한개, 앞에 일곱개의 구멍이 있으며 관에 리드를 꽂아 세로로 부는 전통 관악기. 향피리, 당피리, 세피리가 있다.
② 속이 빈 대에 구멍을 뚫고 입김을 불어넣어 소리를 내는 악기를 통털어 이르는 말.

이 뜻풀이에 따라 ‘향피리’, ’당피리’, ‘세피리’의 뜻풀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웹)》과 《조선말대사전(2017)》에 제시된 ‘향피리’, ‘당피리’, ‘세피리’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표준국어대사전(웹)》

향피리 (鄕피리) 「명사」『음악』 고구려 이전부터 전하여 오는 고유한 피리. 당피리와 같으나 둘째 구멍이 뒤에 있다. 우리의 전통 음악에서 주된 가락을 맡는다.

당피리 (唐피리) 「명사」『음악』 당악기의 하나. 여덟 개의 지공이 뚫려 있으며 둘째 지공은 뒷면에 있다. 대 토막을 얇게 깎아 만든 서를 꽂아서 분다. 고려 시대에 중국 송나라에서 들여와, 종묘 제례악과 당악(唐樂)에 쓰였다.

세피리 (細피리) 「명사」『음악』 피리의 하나. 향피리와 모양이나 음넓이는 같은데 조금 가늘고 작으며, 가곡 · 가사 · 시조 따위의 연주용으로 쓴다. 비교적 음량이 작은 거문고, 단소와 같은 악기가 중심이 되는 세악(細樂)에 편성된다.

《조선말대사전(2017)》

향피리 (鄕––) [명] 《음악》 겹혀를 가진 우리 나라 민족죽관악기의 하나. 앞에 일곱개, 뒤에 하나의 소리구멍이 있다.

당피리 (唐––) [명] 옛날 죽관악기의 한가지. 피리와 비슷하게 생기고 소리구멍은 여덟개인데 그중 우로부터 두번째 구멍은 뒤에 뚫려있다.

세피리 (細––) [명]
① 작고 가는 피리.
② 《음악》 민족관악기의 한가지. 관의 앞면에 7개, 뒤면에 1개의 소리구멍이 있는데 뒤에 있는 1개의 구멍은 고음을 조절하는데 쓰인다. 합주나 노래반주에서 선률을 담당한다.



'향피리', '당피리', '세피리'는 앞서 '피리'에서 뜻풀이한 바와 같이 우리 전통 관악기인 피리의 한 종류이지만 《표준국어대사전(웹)》에서 '향피리'는 '고구려 ~ 고유한 피리', '당피리'는 '당악기의 하나', '세피리'는 '피리의 하나'로 제각각 뜻풀이되어 있다. 특히, '당피리'는 당악기의 하나로 뜻풀이되어 있어 '당피리'라는 올림말을 제외하고는 피리라는 것을 알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향피리'에서는 '당피리와 같으나 둘째 구멍이 뒤에 있다.'로 뜻풀이하여 당피리와의 차이점이 둘째 구멍의 위치인 듯 설명하고 있으나 당피리에서도 '여덟 개의 지공이 뚫려 있으며 둘째 지공은 뒷면에 있다.'로 뜻풀이하여 실제로 당피리와 향피리의 둘째 구멍의 위치는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향피리에서는 구멍으로, 당피리에서는 지공[3]으로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어 사전 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조선말대사전(2017)》에서는 전문 영역에서부터 차이가 나는데, '향피리', '세피리'와 달리 '당피리'만 일반어로 뜻풀이하고 있다. '향피리'는 '우리나라 민족 죽관악기의 하나', '당피리'는 '옛날 죽관악기의 한가지', '세피리'는 '민족관악기의 한가지'로 뜻풀이하여 《표준국어대사전(웹)》과 마찬가지로 제각각 뜻풀이하고 있다. 소리구멍도 '향피리'에서는 '앞에 일곱개, 뒤에 하나의 소리구멍이 있다.'로 '당피리'에서는 '소리구멍은 여덟개인데 그중 우로부터 두번째 구멍은 뒤에 뚫려있다.'로 '세피리'에서는 '관의 앞면에 7개, 뒤면에 1개의 소리구멍이 있는데'로 뜻풀이하여 같은 의미임에도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 또한 각 피리들의 차이점도 알기 어렵게 뜻풀이가 되어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표준국어대사전(웹)》과 《조선말대사전(2017)》에서의 '향피리', '당피리', '세피리'의 뜻풀이는 일관성이 없고 차이점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정확한 뜻을 알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로의 공통점은 일관되게, 차이점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뜻풀이할 필요가 있다.

'향피리', '당피리', '세피리'의 공통점은 전통 피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세 가지 피리 모두 대나무로 만들며 앞에는 일곱 개, 뒤에는 한 개의 구멍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차이점은 모양, 음색, 연주하는 음악에 있다. 굵기는 세피리, 향피리, 당피리 순으로 굵은데 특히, 세피리는 향피리와 같은 모양이지만 조금 가늘고 짧다. 음색은 향피리는 장중하고, 당피리는 어둡고, 세피리는 부드럽고 섬세한 편이다. 그리고 향피리는 예전부터 있었던 악기여서 전통음악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당피리는 당악과 종묘 제례악에서, 세피리는 작은 규모의 합주에서 사용된다.

한편 '세피리'는 '남편 도미는 피리를 즐겨 불고 특히 갈대를 꺾어서 스스로 구멍을 뚫어 만드는 세피리를 곧잘 불곤 하였던 것이었다.《최인호: 몽유도원도)'의 용례에서와 같이 '작고 가는 피리'의 뜻으로도 쓰인다. 이를 바탕으로 '향피리', '당피리', '세피리'의 뜻풀이를 깁고 더하면 다음과 같다.

향피리 (鄕––) [명] 《음악》 전통 피리의 하나. 대나무로 만들며 앞에 일곱개, 뒤에 한 개의 구멍이 있다. 고구려 이전부터 전하여온 우리 고유의 피리로 세피리보다 굵고 당피리보다 가늘다. 음량이 크고 음색이 장중하여 전통 음악에서 주된 가락을 담당하며 가장 폭넓게 사용된다.

당피리 (唐––) [명] 《음악》 전통 피리의 하나. 대나무로 만들며 앞에 일곱개, 뒤에 한 개의 구멍이 있다. 고려 때 중국 송나라에서 들여온 악기로 향피리보다 굵다. 음량이 크고 음색이 어두워 종묘 제례악과 당악 등에 사용된다.

세피리 [세:피리] (細––) [명]
① 작고 가는 피리.
② 《음악》 전통 피리의 하나. 대나무로 만들며 앞에 일곱개, 뒤에 한개의 구멍이 있다. 향피리와 모양은 같은데 조금 가늘고 짧다. 음량이 작고 음색이 부드럽고 섬세하여 작은 전통 악기들로 하는 합주나 노래 반주에 사용된다.



박샛별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했고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9년에 사업회에 입사해 현재 편찬2부 선임편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3) '지공(指孔)'은 '소금(小笒) 이나 퉁소 따위에 뚫은 구멍'을 이르는 말이다.

시심사심 이약이약[1]

글 조정 시인



친구 놈이 정년 허고 고향에 자리 잡었다기래 인사차 들렸는디 아따메 억 소리 나는 오디오가 있드라. 소리가 허벌라부러. 나가 그동안 음악을 건덕꿀[2]로 들었능개비다 했당께. 자리에서 일어선디 친구 놈이 자주 놀러 오라드란 말이여. 단호허게 아니어 했재. 또 오면 병 나것다야 부러우면 지는 거신디 글고 왔당께.

글디야. 이미 져버린 관계 같은디 자주 놀러가서 들어라.

아니여 이겨 낼랑만.

아야 경수야 나허고 같이 놀러 가자. 져주는 것이 이기는 거시여.

아니랑께 내 굳은 심지를 흔들지 말드라고.

잘 생각했다. 내 후배 집이도 억 소리 나는 오디오가 있는디 소리가 게미지드라야. 기계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라이브여. 갸는 나를 음악적으로 계몽할라고 존 음반 나오면 보내주고 근디, 고거슬 나는 20마넌짜리 오디오로 들음서 행복을 찾는다.

존 말이시. 나는 이어폰으로 행복을 찾을란다.

그라재 갤럭시 이어폰만 잃어부러도 겁나 속이 씨린디 그라고 존 물건이 집에 있으면 관리도 성가시고 도동놈이 와서 업어가부까미 비미니 문단속도 허고 글거써. 이어폰 및 이십마넌짜리 오디오가 진정헌 평화여.

그라재. 기똥찬 말씀이다.

근디 성문아 느그 집에 마일스 데이비스 음반 아직 있냐?

쏘 왓?

이 '쏘 왓' 담긴 〈카인드 오브 블루〉도 있고, 내 기억에 〈인 어 사일런트 웨이〉도 있던 것 같은디.

나보다 석 달이나 어린 노무 시키가 하이튼 복고여. 그 병적 취향에 변화를 조까 줘바야.

니가 음악을 아냐.

염병허네. 우리 집 전축으로 귀 뚫린 완도 촌놈이 헐 소리가 아닌 중은 알재?

긍께 있냐 없냐, 옛날에 내가 분명히 느그 집서 봤는디.

있을 테재. 본래 우리 삼춘 꺼신디 눈에 띄먼 속 시끄렁께 으디 한삐짝에 뒀을 거이다.

1) '시심사심'은 전라도에서 (일이나 놀이를) 하는 듯 노는 듯 심심파적으로 하는 것을 일컫는다. 비슷한 말로 '시나브로'가 있다. '이약'은 '이야기'의 방언(경남, 전남)이며, '이약이약'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근조근 이어간다는 말이다.
2) '대충대충'의 방언(전남).



나를 키운 거슨 팔할이 느그 삼춘 엘피판이여. 나가 음악 듣는다고 느그 집서 파고 살았냐안. 나 알오티시 갔을 때 장교들이 인켈 전축 겁나 싸게 살 기회가 있었어야. 그놈을 사서 누님 집으로 보내놓고 휴가 때 마일스 데이비스가 록 버전으로 녹음헌 비치스 브류를 사서 듣는디 머시라까 이상허게 동명동 느그 집 마당에서 역기 들던 생각, 우리만 보먼 반기든 스피츠 생각, 음반에 영어 가사 있으면 해석해주든 삼춘 생각, 시험공부 헌다고 모여서 엎어져 자든 대나무자리 냄새까장 나고 무단히 펑펑 눈물이 났어야. 글고낭께 잠잠허니 박병천 선생 진도 북춤 첨 보든 날 같이 내 정신적 길이 보여불드라고.

머시가 보여야. 저 징한 놈이 음악 듣는 시간에 공부를 했으먼 부모님 기대대로 의사가 되야쓴 거신디. 내 불찰이재. 머덜라고 너를 우리 집 데꼬 가서 전축 자랑을 허 꺼이냐.[3] 니가 허천난[4] 음악 기생충인지 몰랐재. 하이간 니는 자취방보다 우리 집서 묵고 잔 날이 만할 거시다.

내 인생으 최고 귀인이 느그 엄니여. 메칠을 파고 살어도 아가 으째 집이를 안 가냐 말씀 한 번을 안 하시드라.

낫살이나 묵응께 철 들어서 기억이 새록새록 허지야.

글재. 느그 엄니나 삼춘같이 너그럽게 살기가 쉽지 안 해. 아무나 글간디. 나가 학교서 아그들 갈침서 때때로 엄니 생각을 했어야. 이 애기를 내 자식으로 여기먼 내 마음이 이라고 인색 허것냐 허고.

성문이 엄니가 5.18때 우리 서이 골방에 가돠놨다가 6월 1일날 문 끌러주시든 생각 나지야. 삼춘이 봉고 끄꼬 왓다. 언넝 타고 시방 금성여객으로 가라. 나가 전화는 디래 놧다마는 엄니아부지 속이 다 보타져부렀을 거이다. 옆도 돌아보들 말고 가야써 그라심서 오천 원씩 쥐어주셨어야.

엄니 땜시 살았재. 글안해도 쩌번창께 아부지 심바람[5]으로 고향에 갔다가 꼭 느그 엄니 연세나 보이시는 할매를 만났어야.

용철이 너 보고자와서 울 엄니가 살아 오셨디야.

아따 글먼 좋재. 큰 질 가세다 차 세와노코 걸어간디 들꽃같이 쪼그마난 할매가 지팽이를 낮촤 잡고[6] 앙거 기시다가 나를 올려다봄서 으디서 오는 질이요 물으시드라.

3) '전축 자랑을 할 것이냐.'이며 "전축 자랑을 하지 말 걸 그랬다."로 읽을 수 있다.
4) '걸신들리다'의 방언(전남).
5) '심부름'의 방언(전남, 경상, 함경).
6) '낮게 내려잡고'의 방언(전남).

신원조회 받었냐? 촌에 가먼 어르신들이 국정원이여.
예 광주서 옴니다 그랬드니 본격적으로 싸목싸목[7] 물으시드랑께. 글서 나도 쭈글시고 앙거서 한참 문답허고 놀았다야.

먼 일로 여그를 오셌소.
아부지 심바람으로 채지리 일가댁에 갑니다.
아부지가 누구시까?
글씨요, 누구시락 해야 아시까요. 즈이 아부지는 성안에서 태어나셔서 함마니는 모르실 것 같은디요.
그요이. 일가는 누구요?
제각 건넛집에 형자 식자 쓰시는 분이구만요.
거그는 먼 일로 가요.
동네 안에 째깐헌 밭이 한나 있그등요. 아부지가 거그다 더덕 심으실랑갑서요. 밭 잔 갈아도라고 부탁 드리랑만요.
전화를 하재 먼 질을 왔소.
예, 그래도 된디, 조부님 산소도 돌아보고 할라고 겸사 왔어요.
생긴 것도 좋게 생긴 사람이 맘씨도 차가요이.
아이고 차가게 살도록 노력헐랍니다.
오메 그라고말고, 존일에 효도허고 우애허고 사씨요이.
함마니는 혼차 으디를 다녀 오싱가요?
이, 우리집 대문이 고장나서 찌그덕빼그덕 해. 덕진 사는 조캐가 내일 손대주러 온디 내가 늘거 밥도 못 해주고 미안항께 담배나 두 갑 사놀라고 점빵 댕개오요.
걷기 심 드셔서 쉬신가요?
몸땡이가 바보 멍텅구리가 되야부렀어. 허리가 요라고 굽응께 잘 못 걸어. 전 같으면 나부맹키[8] 폴폴 날라갔다 올 디를 포도시[9] 댕긴당께. 빵끗허니 피는 저 고운 꽃아 간 봄에는 나도 꽃다웁더니 으짜다저짜다 물짜져부렀구나.[10]
워메 인자 봉께 함마니가 풍류 시인이요, 시인.
에말이요.[11] 미안하재만 내 손 잔 잡어줘. 혼차 인날라먼 그도 삐들빼들헝께 젊은이 본 짐에 일나사재.

짚단같이 가붑디 가분 할매 인내켜서 손 붙잡고 동네까장 모셔다 디렸다.
음마 잘 했다. 할매가 전생 손지 만났구만.
이약이약 험서 한 십 분 걸어간디 날은 말갛고 동구에 살구꽃은 환허고 할매가 허는 말씀이 노래드라.

춤추고 잡게 너룬 날이네.
새끼들 키고 핑핑 담박꿀치고 살 적이는 꽃이 피는가 나부 날르는가를 몰르고 살었는디 인자는 안 이쁜 꽃 없고 안 이쁜 사램이 없소.
참꽃이 개꽃허고 같이 피먼 누가 참꽃을 보며 산수유허고 개나리가 같이 피먼 누가 산수유를 볼 것이요 때맞춰 꽃 한나 피는 것도 하눌님이 짚이 생각고 허시는 일이여 그래야 꽃마다 이쁨 받을 것 아니요.

니가 길에서 관음보살님을 만난 것 아니여? 어르신들을 자조 만날 일이여. 그런 말씀은 학교서 안 갈쳐야.
하눌님의 맘으로 사람을 보먼 안 이쁜 사람이 있을라디야. 나도 나이가 등께 산에 너럭바우도 사랑스러울 때가 있드라야. 긍께 사람이 때가 되먼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두렵지가 안 항갑써.
귀거래사가 절로 떠오른다이. 돌아가련다, 전원이 거칠어지려는데 아니 돌아갈소냐.
맞어. 태가지 빠짝 치깨 들고 살기가 애럽재 몸 굽혀 나지막해지먼 서글픈 듯 관조허듯 살게 되재. 용철아 다음 주 일요일에 경수 부모님 뵈러 완도 가자.
우리 집 간다고? 나는 그날 일 있어야.
이, 너는 없어도 되야. 우리를 채 더 반가허실 거이다.



조정
시인. 200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으로는 『이발소 그림처럼』, 『그라시재라』, 『마법사의 제자들아 껍질을 깨고 나오라』 등이 있으며, 장편동화 『너랑 나랑 평화랑』이 있다. 거창평화인권문학상, 노작문학상을 수상했다.

7) '천천히'의 방언(전남).
8) '나비처럼'의 방언(전남).
9) '간신히'의 방언(전라).
10) '볼품이나 쓸모가 없고'의 방언(전남).
11) '여보시오', '저기요'의 방언(전남).

자모순이 아닌 38개 분야의 주제별 백과사전

《광명백과사전》

글 **남초록** 겨레말큰사전 책임편찬원



↑ 《광명백과사전》(전 20권 1질)

백과사전은 개별 표제어가 가리키는 대상이나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사전으로, 언어사전과 달리 과학이나 자연 및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지식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백과사전으로는 '동식물 용어 사전', '의학 용어 사전', 'IT 용어 사전' 등 '전문 분야별 사전'과 이러한 전문 분야별 사전을 종합한 '대백과사전'이 있다.

광복 후 남한에서 발간된 최초의 백과사전은 학원사에서 발간한 《대백과사전》(1958)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시작으로 남한에서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991), 《두산세계대백과사전》(1996) 등 천여 종의 백과사전이 발간되거나 웹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전 27권)은 민족 문화와 관련된 6만 5천여 항목과 4만여 장의 도판을 수록하고 있으며 한글 자모순으로 항목들을 배열하였다. 마찬가지로 한글 자모순의 《두산세계대백과사전》(전 30권)은 12만 8천여 항목과 4만 2천여 점의 사진, 지도 및 도표 등을 싣고 있다. 특히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의 인명, 지명, 문화재 등 북한과 관련된 항목들을 2백여 개 수록하고 있다.

광복 후 북한에서 발간된 최초의 백과사전은 백과사전출판사에서 발간한 《백과사전》(1974)으로 추정된다.[1] 이 사전을 토대로 《백과전서》(1982)가 발간되었고 이 두 사전을 바탕으로 규모를 확장한 사전이 《조선대백과사전》(1995~2001)이다. 《조선대백과사전》(전 30권)은 10만여 항목과 2만 5천여 점의 삽화 및 사진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며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전을 참고하여 조선말 자모순이 아닌 주제별로 항목을 배열하여 새롭게 발간한 사전이 《광명백과사전》(2007~2011)이다.

《광명백과사전》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5만 8천여 개의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2007년에 1권 발간을 시작으로 2011년에 전 20권으로 완간되었는데, 권별로 순차적으로 발간된 것이 아니라 전문 분야별로 집필 및 편집이 끝난 것부터 먼저 발간되었다. '지식은 광명(光明)'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광명백과사전》은 북한의 근로자들에게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편찬되었고 사전의 구조뿐만 아니라 개별 항목 하나하나에 발간 주체가 강조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담론이 반영되어 있다.

《광명백과사전》은 '머리말, 일러두기, 차례, 본문, 찾아보기(색인)'의 체재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어를 자모순으로 배열한 '찾아보기 중심'의 《조선대백과사전》과는 달리 각 전문 분야에 대한 체계를 세우고 주제별로 내용을 전개한 '읽어보기 중심'의 백과사전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하나 또는 몇 개의 전문 분야를 한데 묶어 하나의 권으로 구성하고 매 권마다 해당 분야의 항목들을 '편, 장, 절, 소제목, 분제목' 등으로 나누어 배열하였다.

순서	전문 분야
1권	조선의 력사
2권	세계의 력사
3권	정치 · 법
4권	철학
5권	경제
6권	문학예술
7권	교육 · 어학 · 출판보도
8권	조선의 지리
9권	세계의 지리
10권	수학
11권	물리학
12권	화학
13권	생명과학
14권	천문 · 지구 · 환경
15권	정보 · 조정 · 나노기술
16권	채굴 · 금속 · 기계 · 전기 · 전자공업
17권	화학공업 · 경공업 · 건설 · 운수 · 체신
18권	농업 · 산림업 · 수산업
19권	인체 · 보건
20권	체육

↑ 《광명백과사전》은 전 20권, 38개 전문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광명백과사전》은 독자의 상식을 넓힌다는 목적에 맞게 기본 체재와는 별도로 보충 항목들을 선정하고 있으며, 특정 분야의 경우에는 보충 항목 외에 추가로 부록을 제시하고 있다. 체육 분야를 다룬 제20 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올림픽찬가', '5륜의 력사', '올림픽구호', '올림픽기발' 등의 보충 항목들이 표제어가 있는 페이지 아랫부분에 따로 설명되어 있다. 부록으로 수록된 '우리 나라 주요 체육시설' 항목에는 '김일성경기장', '5월1일경기장', '양각도축구경기장', '평양체육관', '빙상관', '평양보링관', '청춘거리' 등 북한의 주요 체육시설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 외에도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9천여 개의 삽화와 사진 및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삽화와 사진은 흑백으로 실려 있는데 체제나 사상과 관련한 중요 인물, 중요 시설, 올림픽 주요 경기 및 세부 종목 등은 컬러로 수록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광명백과사전》은 여러 분야의 지식과 상식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는 총서로 북한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귀중한 북한 연구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광명백과사전》의 다양하고 풍부한 북한 관련 정보는 《겨레말큰사전》의 표제어를 집필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전문용어의 뜻풀이를 할 때 《조선대백과사전》과 함께 좋은 참고 자료로 쓰이고 있다. 끝



남초록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2006년 사업회에 입사해 현재 편찬1부 책임편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1) 이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신 한국백과사전연구소 대표 장경식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변영수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편찬부장

남북 어휘를 새롭게 발굴하는 《겨레말큰사전》 문헌어 작업

2007년 사업회에 입사한 변영수 편찬2부 부장은 총 25회 개최된 공동회의 중 8차례 참석해 북측편찬위원회와 《겨레말큰사전》을 공동 편찬하는 일에 직접 참여했으며 현재는 사전 원고 교열, 문헌어의 전반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입사 이후 17년 동안 묵묵히 《겨레말큰사전》 문헌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영수 부장을 만나봤다.



↑ 제17차 공동회의(2009. 3. 28. ~ 4. 4., 평양)에 참석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완서, 변영수, 김강출.



↑ 제25차 공동회의 단체사진(2015. 12. 6. ~ 12. 13., 중국 다롄)

독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2007년 사업회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17년 동안 편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소 어휘의 의미 관계에 관심이 많았고 어휘의 의미성분 분석을 통한 의미 자질을 바탕으로 동의어, 반의어 등을 구분하는 것, 동의어끼리도 정서적, 사회적 의미까지 동일한 절대적 동의어는 많지 않은 어휘 특성 등 어휘의 의미 현상에 흥미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흥미를 충족시키는 데 사전만큼 좋은 작업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남측의 언어를 넘어 북측 언어를 포괄하는 작업까지 할 수 있어 사업회가 매력적인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입사 때부터 새어휘를 선별하는 작업을 했는데, 특히 지역어 선별을 시작으로 문헌어 선별로 업무가 확대되었고, 현재는 문헌어[1]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25차례 공동회의 중 8차례 참석해 북측과 《겨레말큰사전》 편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지요?

현재 편찬2부 부장으로서 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레말큰사전》 발간 준비를 위한 원고 보완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북측분 원고가 공동회의 미개최로 완결되지 못한 상태여서 북측분 원고 교열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겨레말큰사전》에 수록될 새어휘 문헌어 외에도 추후 《겨레말큰사전》에 실릴 만한 새어휘를 추가 채집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시, 소설, 수필, 신문, 잡지 등의 문헌 자료에 나타나는 어휘.

《겨레말큰사전》 편찬 작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사업회 전 직원이 함께하는 고민이자 어려움일 텐데, 남북이 함께 만드는 사전임에도 북을 그때그때 만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업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수시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작업할 수 없고, 그나마 정기적으로 공동회의가 개최되면 공동회의 때 미결 과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지만, 현재는 공동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북측 편찬위원을 만나 작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공동회의가 재개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공동회의가 진행될 때에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내용을 협의하고 결정하느라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들, 그러나 돌아와서 확정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궁금증, 즉 어휘의 용법이나 미세한 의미 차이 또는 뜻풀이한 내용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등 메모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공동회의가 진행되지 않아 북에서 받지 못했고, 그래서 사전 목록에 추가할 수 없었던 북측 새어휘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은 그동안 못 뵀던 북측 편찬위원 선생님, 특히 정순기 선생님과 따뜻한 악수를 나누고 안부를 여쭙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제21차 공동회의(2014. 7. 29. ~ 8. 6., 중국 선양)를 마무리하며 북측 정순기(가운데) 선생과 함께.

끝으로 소개할 만한 '겨레말'은?

《겨레말큰사전》 편찬 작업을 하면서 지역마다 다르게 쓰는 방언처럼 규범어, 일상어에도 남에서만 쓰거나 북에서만 쓰는 어휘가 각각 존재하는 것을 보면, 언어가 인간의 사상이나 생활상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북에서만 쓰는 '머리의 특징'을 나타내는 어휘를 소개하자면, '불노랑머리(약간 붉은색을 띤 노란 빛깔의 머리, 또는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 갈매기머리(날아가는 갈매기의 모양과 같이 량옆으로 가쯘히 빗어 넘긴 남자의 머리), 강굴머리(=곱슬머리), 달래머리(하얗게 센 머리를 비겨 이르는 말)' 등이 있습니다. 빨리 공동회의가 재개되어 《겨레말큰사전》 북측 새어휘들을 더 많이 실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2024 겨레말 소식

제7회 사업회 학술 연찬회 개최



사업회는 지난 6월 4일 장경식 한국백과사전연구소 대표를 초청해 사업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7회 학술 연찬회(아래 '연찬회')를 개최했다. 장 대표는 한국브리태니커회사 편집책임자와 대표를 지냈으며 현재 한국사전학회 창립회원으로 출판이사를 맡고 있다. 또 장 대표는 단행본 『브리태니커 백과사전』과 「지식 포털과 온라인 사전」, 「디지털 인문학 시대 백과사전의 역할」 등의 논문을 쓰는 등 시대에 따른 사전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왔다.

장 대표는 '인공지능 시대의 《겨레말큰사전》'을 주제로 '담론의 구성체'로서 사전의 본질에 대해 고찰하고 대형 포털과 검색 플랫폼, 위키백과와 같은 '유사 사전'의 출현과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새로운 사전 편찬의 필요성에 대해 강연했다. 아울러 《겨레말큰사전》의 정체성을 '남북의 통일이라는 담론을 전제로 한 미래 규범이 적용된 사전'으로 보고, 개발 준비 중인 전자사전에서도 《겨레말큰사전》만이 갖고 있는 담론을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로 구현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부터 사업회는 관련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는 데 학술적 자문을 구하고 임직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업회 홈페이지
겨레말 사진

〈전국 겨레말 나들이〉 서울 편 행사 개최



사업회는 지난 7월 9일 겨레말TV 프로그램 〈전국 겨레말 나들이–서울〉 행사 '말(言)들의 서울 소풍 1'을 국립한글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 전주, 청주, 제주, 강원에 이어 여섯 번째로 개최됐으며 시민 60여 명이 참여했다. 허희 문학평론가가 진행을 맡았으며 『방언정담』의 저자 한성우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가 이야기 손님으로 나왔고 사전편찬가로 권혜진 사업회 선임 편찬원이 출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예능 프로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많은 관심을 받는 서울말을 주제로, '서울말(중부방언)'의 특징과 서울말의 조사·수집·연구, 그리고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 대해 두루 이야기를 나눴다.

오는 10월 5일에는 〈전국 겨레말 나들이–토착어로 문학하기〉 '말(言)들의 서울 소풍 2'가 자작나무 책방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제5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사전 행사로 진행되며 경상도 안상학 시인, 전라도 이대흠 시인과 충청도 송진권 시인이 함께 출연해 지역어로 창작한 시를 직접 낭송하고 토착어로 창작한 문학작품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전국 겨레말 나들이〉는 지역을 직접 찾아 지역민과 소통하고, 남북 및 해외 지역의 겨레말을 집대성하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알리는 행사로 모든 행사 영상은 겨레말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겨레말TV
겨레말 나들이

2024년 겨레말문화학교 강좌 운영



사업회는 지난 7월 5일과 10일 '2024년 겨레말문화학교' 여름 학기 특별 강좌를 운영했다.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정된 4개 강좌('미래 사전을 읽다', '영화로 알아보는 《겨레말큰사전》', '남녘에서 북녘말로 살아가기', '《겨레말큰사전》과 사회문화교류')를 개설해 수강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겨레말문화학교 여름 학기 특별 강좌에는 총 52명의 수강생이 참여해 남북 언어 통합과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 관한 관심을 보여 주었다.

한편, 사업회는 봄 학기에 이어 가을 학기 정규 강좌를 안국포럼, 보리출판사, 동국대학교, 서울대학교, 북미 지역 대학(캐나다 토론토대학교,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등) 등 5곳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사업회는 2023년부터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성과와 남북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 언어문화와 남북 교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겨레말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회 홈페이지 내 겨레말문화학교 페이지에서는 학교 동아리, 평화·통일교육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남북 언어문화 학습 자료〉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사업회 홈페이지
겨레말문화학교

제5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개최



사업회는 10월 10일과 11일 양일간 남북통합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제5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아래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민현식 사업회 이사장의 개회사와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의 환영사,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상미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대사의 축사로 막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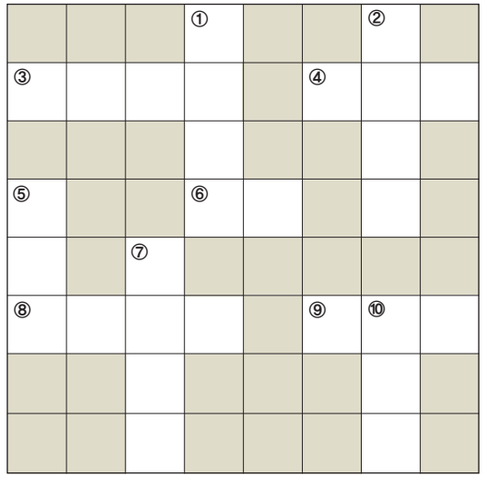
첫째 마당(10일)에서는 '전자사전을 통한 토착어의 보존과 계승'을 주제로 국어사전의 미래, 국어사전의 변천과 과제, 《전자 겨레말큰사전》의 구조와 편찬 방향, 국내외 전자사전 사례 연구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통해 토착어의 기록 매체로서 《전자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방향을 모색해 본다.

둘째 마당(11일)에서는 '남북·해외 겨레말 문학과 토착어'를 주제로 재외동포 문학과 모국어, 북한 문학과 지역어, 그리고 충청도 지역어로 쓴 시와 우즈베키스탄, 연변, 일본 동포사회의 문학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특히, 이날은 2021년부터 추진한 '토착어로 문학하기' 아카이브 프로젝트인 토착민이 읽는 토착어 시 작품 낭송 영상도 직접 볼 수 있다. 이번 포럼의 현장 영상과 '토착어로 문학하기' 아카이브 영상은 폐막 후 사업회의 유튜브 채널 겨레말TV와 포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국제학술포럼
공식 홈페이지



겨레말 낱말 풀이는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언어(http://dic.gyeoremal.or.kr)'와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에 수록된 단어로 제작되었습니다.



① 축구나 농구에서 득점할 수 있는 선수에게 공을 보내는 일을 뜻하는 '어시스트'의 북녘말.
예) 그는 갈매기팀과의 경기에서 도합 22개의 골을 넣고 5차례의 {○○○○을} 해주었다.《조선신보》

② 남녘의 노점상과 같이 이동판매를 하는 매대를 이르는 북녘말. 남녘의 '푸드트럭'을 '전동차식 ○○○○'라고 부른다.
예) 그는 {○○○○에서} 석간신문을 사들고 넓은 대합실 구석 긴 쇼파에 가앉았다.《시대의 념원》(북)

③ 북녘과 중국 동포사회에서 '백화점'을 이르는 4음절의 단어.
예) 나는 {○○○○에} 들려 안해의 바지 하나를 샀다.《고신알 귀향기》(중국)

④ 서로 단짝인 친구나 한 짝을 이루는 친구를 뜻하는 북녘말.
예) 중학시절 그들과 한아빠트에서 살던 가장 가까운 {○○○였다}.《열매》(북)

⑤ 과일의 하나인 '멜론'의 북녘말. '향이 나는 참외'라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다. 북녘에서도 외래어로는 '멜론'이라고 한다.
예) 김구선은 그 향기와 빛갈에 취한듯 한동안 남방과일인 {○○○를} 얼없이 바라보았다.《영원한 력사》(북)

⑥ 글자나 그림 같은 것을 아무 데나 함부로 쓰거나 그리는 '낙서(落書)'의 북녘 표기.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예) 지창연은 원주필로 수첩장에 {○○}비슷한 글을 쓰고있다.《천지의 은하수》(북)

⑦ 한쪽 모서리에 비좁게 누워 자는 잠을 뜻하는 북녘말로 2017년 《조선말대사전》 증보판에 처음 등재되었다.
예) 손님들이 자는 발치로 들어가 앉으니 {○○○○도} 잘수 없는 형편이여서….《시련속에서》(북)

⑧ 주둥이 위에 뿔이 한 개 달린 코뿔소를 이르는 4음절의 북녘말. 코뿔소는 한자어로 서우(犀牛)라고 한다.
예) 서우들중에서 수명이 제일 긴 {○○○○는} 네팔에서 용맹의 상징으로 간주되고있다.

⑨ '막내딸'을 이르는 북녘말로 2017년 《조선말대사전》 증보판에 처음 등재되었다.
예) 큰딸형제는 벌써 다 출가를 시키고 {○○○만} 남았더라오.《땅》(북)

⑩ 나라 이름 '이집트'의 북녘 표기.
예) {○○○공주는} 그 애를 {○○○말로} 아들이라는 뜻에서 모세라고 불렀소.《혜초려행기》(북)

정 답

①득점련락	②이동매대	③백화상점	④짝동무
⑤향참외	⑥락서	⑦모서리잠	⑧외뿔서우
⑨끝에딸	⑩에짚트		

2024년
함께 만드는《겨레말》

2024년 겨레말 가을호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수 후기를 선정하여
총 다섯 분께 정해진 **상품**을 드립니다.

독자 참여

스마트폰의 '화면잠금' 기능을 북녘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4음절)
단서! 32쪽 〈남녘말 북녘말〉에 정답이 숨어 있어요!

이번 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꼭지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참여 방법

보내실 곳: gyeoremal@gyeoremal.or.kr
참여 기한: 2024년 10월 31일까지

※ 당첨자에게는 응모한 연락처로 개별 연락드리며 채택된 독자 의견 중 일부는 다음 호에 실립니다.

겨레말 독자 이벤트♥

2024년 봄호 독자 의견

제주에서 팽나무를 제줏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정답: 폭낭

[겨레의 창] 인공지능(AI) 시대, 통일교육에 대한 단상
인공지능 기술이 통일교육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가상현실(VR)을 통해 분단 현실을 체험하거나, 인공지능 대화 시스템을 활용해 북한의 문화를 이해하는 등 미래세대들의 통일 인식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요. _안○준

[기획특집] 《겨레말큰사전》은 미래의 사전이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의 의미와 인공지능이 《겨레말큰사전》 편찬에 미치는 영향을 흥미롭게 다룬 내용이라 꼼꼼하게 정독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겨레말큰사전》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의 미묘한 차이까지는 끝내 설명해 줄 수 없을 거라는 맺음말은 다시 한 번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네요. _이○숙

[남녘말 북녘말] 언어의 분단은 사랑으로 통한다
남북 관계가 남녘말과 북녘말처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 이면을 잘 이해하지 못해 소통의 분단으로 이어진 것 같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남북 사이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언어가 있고 언어를 통해 충분히 지난 오해와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달라진 언어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그래서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_김○득

[우리말 보물찾기] 박석눈
강원도에서는 함박눈을 박석눈이라고 불렀네요. 김도연 작가님의 어린 시절 눈 오는 날과 대관령의 풍경이 그려져 좋았고, '가랑눈, 싸락눈, 소나기눈, 찰눈'처럼 날씨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눈의 이름들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말은 참 다양하고 신비롭다고 느낍니다. _홍○선

[겨레말사람들] 《겨레말큰사전》 편찬이라는 어려운 숙제
18년 동안 《겨레말큰사전》 편찬이라는 일을 해 오신 데 경의를 표합니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를 넘어 문화와 정체성을 이어주는 교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의 말을 한데 모으고 정리하는 일은 우리 민족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겨레말큰사전》이 우리말의 보고로서 그 가치를 더욱 빛내길 바랍니다. _이○범

제5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The 5th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Sustainable Development of Indigenous Languages

“전자사전을 통한 토착어의 보존과 계승 및 남북·해외 겨레말 문학과 토착어”

2024. 10. 10.(목) ~ 10. 11.(금)

남북통합문화센터 대강당



www.gyeoremal.or.kr

/gyeoremal1

@gyeoremaltv

@gyeoremalsajeon

사전 참가 등록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